



영어공부 제대로 알고 하자

## 대학생 영어공부 실태분석

# 점수보다 실력으로 평가 받아야

## 실질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필요해

우리 신문은 '2005 대학생 현주소' 라는 큰 틀 아래 2학기 동안 △영어 △휴학 △대학생 의식을 주제로 단기기획을 지면화 한다. 첫 번째로 '영어 공부 제대로 알고 하자' 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영어의 벽을 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1. 대학생 영어공부 실태 분석
2. 대학 영어교육 분석

학기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기간에도 도서관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학구열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은 각종 토익, 토플 책들을 앞에 두고 그야말로 영어와 한판 '씨름'을 하고 있다. 21세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고민거리를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은 영어와 취업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든 간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4년 내내 영어 점수와 실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시절 내내 쌓은 영어 실력과 점수는 곧 취업과도 무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쌓은 영어 실력이 곧 자신의 미래 진로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 토익은 취업의 관문

실제로 취업전선에서 응시자의 영어 실력은 주요한 선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에서 영어 실력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토익 점수 올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윤지원(신방4) 학생은 "취업 과정에 있어 토익 점수가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토익 점수 올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토익점수 만능'의 사회 분위기가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주, 객을 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영어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보다는 단순히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한 요령 위주의 공부 방식을 선호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영어 학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제대로 된 영어 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문학과 노현균 교수는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데에 기준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 간편하게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토익 점수 위주의 평가는 실질적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

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고득점의 토익점수가 곧 경쟁력을 갖춘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900점 이상의 토익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직장에서는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시 영어 학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처럼 점차 토익의 변별력과 점수의 신뢰성이 낮아지면서 전형단계에서 이미 비중을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800점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토익점수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삼성, LG, 대우, 팬택 계열 등의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영어 면접시험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토익 점수는 응시자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지표 정도로 활용하고, 토익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영어 면접시험을 통해 직접적인 실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요령위주 공부 문제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하락의 원인을 점수 위주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로 돌리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만 보아도 대부분의 영문과 교수들은 입을

모아 학생들이 원어로 진행되는 과목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 등의 공부에서도 단기간에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의 패턴을 암기 하는 등 요령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대학생들의 잘못된 영어 학습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학에서의 원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소리 내며 읽는 습관을 꾸준히 하고, 원어 강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익숙한 영어 강사는 "토익 시험 역시 잘 살펴보면 생활적, 비즈니스적으로 유용한 단어나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 패턴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의 테이프 등을 매일 반복적으로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며 문장을 이해한다면 점수 향상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토익 점수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취업에 위한 영어 공부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영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짜' 영어 공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때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축구부,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준우승

## 주전선수들 체력 저하·부상으로 송실대에 분패

우수 감독·코치·선수상 수상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2005 헬멧코리아배 전국 추계 대학 연맹전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총 41개 대학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 축구부는 동아대를 1:0, 고려대를 2:0으로 꺾고, 전주대에 1:1 무승부로 조 1위를 차지해 무난히 예선전을 통과했다. 또한, 16강전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가운데 영남대를 3:2로 이기고 8강전에 진출했고 조당대에 2:0으로 승승장구 했다.

이어서 치른 4강전에서 우리학교는 2005춘계대학연맹전 우승자

인 건국대를 맞아 명승부를 펼쳤다. 경기시작 16분 만에 박희도(제교1)가 높게 차 올린 공이 상대 선수 가슴에 맞고 들어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16분에 건국대에 한골을 내주면서 1:1로 경기가 종료됐다.

연장전은 연장전반 7분에 건국대가 한골을 넣어 승부가 나는데도 연장후반 3분에 박희도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2:2 무승부 기록했다. 경기의 승패는 승부차기에서 가려졌다. 상대팀의 슈트를 2회나 막아낸 골키퍼 박지훈(제교4)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4:2로 건국대를 누르고 결승전 티켓을 거머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강원도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송실대의 결승전에서 3:0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축구부의 김상화 코치는 "4강전에서 건국대와의 접전 후에 체력을 보강할 겨를 없이 결승전에 나가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고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원활한 경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에서 △김용해 감독=우수감독상 △김상화 코치=우수코치상 △하재훈(제교3)=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관련 인터뷰 10면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방향 확정

## 사상·주장 및 사회·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도 평가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수학 관련 논술문제 출제금지 방침에 따라 불투명했던 2차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방향이 확정됐다. 이번 논술고사는 교육부의 논술고사 출제 세부지침에 따라 기존 계획과 달리 교과 관련된 문제도 제외된다. 변경된 논술고사에서는 사상이나 주장, 사회·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 명하거나 자기견해를 서술하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 관계자는 "변별력

을 높이고자 짧은 분량(100자~200자)의 답안이 요구되는 질문 3~4개와 제시문에 나타난 관점을 비교해 자신의 관점을 논하도록 요구하는 500~600자 분량의 질문 1개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술고사의 예시문제는 오늘(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한편, 지난 16일 마감된 2006년도 2학기 수시모집 점수가 평균 경쟁률 14.73: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4.56:1과 비슷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작년보다 지원자 수가 늘었지

만 모집 정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큰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어교육과 36:1, 역사교육과 26.6:1, 수학교육과 32.6:1 등 사범대학 집중지원 현상이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연극영상학부(연극-설기)는 88.27: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2학기 수시모집은 총 988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4일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2차 수시 모집 논술고사는 다음달 22일 실시되며 일반 우수자 연극전공, 문학재능 우수자, 체육기능 우수자의 실기고사는 다음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치러진다.

### 본교 인사 발령

지난 22일 기획처장에 심익섭(행정학)교수를 발령했다. 또한 최근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과 기술이전센터장에 임중연(기계공과)교수를 겸직 발령했다.

### 본사사령

- ◆ 임 정기자
    - ▲ 정영아 (사과대 1)
  - ◆ 임 수습기자
    - ▲ 김지현 (문과대 독어독문 1)
    - ▲ 이주현 (이과대 수학과 1)
    - ▲ 이승진 (사과대 1)
- 이상 9월 26일자

#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 를 기획 연재한다.

## ⑩ 긍정의 힘 직접 보여 주는 오수인 직원



긍정의 힘은 강하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는 목공실 오수인 직원. '칭찬합니다' 12번째 주인공인 그를 만나 '긍정적 사고' 에찬사를 들어보았다.

"학교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고장난 책상이나 의자를 고침으로써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하고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즐겁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를 알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묘약이 있다. 바로 사회 봉사 활동이다. "봉사활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몸을 움직이니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봉사를 마치고 나서는 뿌듯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인데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만난, 이제는 자신의 친 부모, 자식 같은 이들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그,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가 보았던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일산에 명의 집결!

일산의 청정한 자연- 28,000평 첨단 의료시설에 모인 손꼽히는 명의들. 대한민국 의로서비스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The Best Digital Hospital -  
동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한방병원

거원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석사동 814 / 대표전화 1577-7000 / www.duih.org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 실험실습비 앞으로 학기초부터 사용가능

## 계열별 등록금에 따라 차등 지급

### 미집행 실험실습비는 해당대학 기금으로 적립

제도 개정으로 인해 중단됐던 1·2학기 실험실습비 지급이 늦어도 이번달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습비 예산을 포함한 2006년 예산 편성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1학기 실험실습비는 배정된 상태이고 2학기 실험실습비도 다음주 중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번 2006년 예산 편성 지침 중 실험실습비 예산을 살펴보면, △실험실습비 책정·배정 기준 △사용방법 등에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실험실습비는 등록이 마감된 후 등록원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등록마감까지 예산편성이 미뤄지다 보니 전체적인 실험실습비 지급은 학기 중반에 가

서야 확정통보돼 학과에서 실험실습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해부터는 무조건 1학기에는 편제정원의 80%, 2학기에는 1학기 등록인원의 70%에 해당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기초에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계열별로 동일하게 실험실습비가 지급됐던 것과 달리 서울캠퍼스의 경우 △인문계열 △공학계열 △이과계열 등 각 계열별 등록금 차이에 따라 실험실습비가 차등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공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공대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실험이 많아 학생들의 등록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는 똑같이 책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

다"며 실험실습비 차등 지급방향을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험실습비 사용 범위도 '학생의 실험실습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로 명시하고 실험실습과 무관한 경비지출은 금지했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은 구매팀을 통하지 않고 학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품 도착 지연과 최저가 낙찰 선호에 따른 물품 품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관계자는 "학과 차원에서 진행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처음인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당해 연도 미집행

실험실습비는 회계연도 말에 해당대학 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해당학과 교육운영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하며, 학과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단과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처의 관계자는 대학기금 조성과 관련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집행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품 도착 지연과 최저가 낙찰 선호에 따른 물품 품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이번 실험실습비 예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에서 학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감사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웃'만 나와라 ... 지난 15일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팔정도 앞에서 '한기위 한마당'이 열렸다. 동국인들이 6인 한팀으로 '인간웃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후기졸업자 성적우수상 수여

2004학년도 후기 졸업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우수상을 수여하게 됐다. 이렇게 후기 졸업자들이 성적우수상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는 그동안 후기 졸업자에게는 무조건 성적우수상이 수여되지 않았던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한 학생상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후기 졸업자들 중에서도 전기 졸업자 중 성적우수상을 수여한 학생보다 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성적우수상을 수여받게 된다. 이번 2004년도 후기 졸업자 중 성적우수상을 받게 된 학생은 송주호(생명화학 05졸), 이재영(가교 05졸), 김수정(문학 05졸)이다.

# 동국인들 평소 쌓은 지식 겨루는 한자리

## 제2회 동국독서퀴즈대회 열려 ... 유호창 군 대상 차지

지난 14일, 팔정도에서 동국의 책벌레들이 모였다.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서 주최한 '제2회 동국독서퀴즈대회'가 열린 자리다.

이번 행사는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독서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총 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문 △사회 △자연

△불교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1시간 반 동안 문제를 푼 학생들은 '자유론'의 저자인 '밀'을 묻는 문제에서 대거 탈락했으며 패자부활전 OX퀴즈에서도 많은 학생이 부활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28번째 문제인 '베트남 출신으로 시인이며 선승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인 스님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

에 '탁났한 스님'이라고 답한 유호창(경행2)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동국 독서퀴즈대회 결과, 독서 대상=유호창(경행2), 우수상=차상준(경행4), 장려상=한영철(철학4)군이 차지했으며 각각 100부활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28번째 문제인 '베트남 출신으로 시인이며 선승이자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인 스님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

이와 관련해 1등을 차지한 유호창(경행2)군은 "긴 통학 시간이

용해 틈틈이 책을 읽은 독서습관이 이번 퀴즈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책을 안보는 편이다. 인터넷에만 빠져 지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책을 읽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동국독서퀴즈 대회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은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내년에는 상금규모를 늘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후속취재 - 학생회비 분리납부 그 후

### 학생회비 납부율 예상보다 높아

#### 학생회에 대한 고민 부재 문제로 지적

학생회비가 등록금에서 분리납부되면서 이번 2학기부터 학생회비 납부가 선택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2일까지 약 90%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고 그 중 85%의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해 고교대 70%대 초반 등 타대학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회비 납부율도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비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과 학생회비의 목적과 용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에 비해 학생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생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윤지원(행정3) 양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등록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회비를 내는 사실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회비를 환불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학기 학생회비를 환불해 간 학생은 1천 여 명 정도이다. 우리학교 여론 게시판인

'나의 주장'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학생들의 학생회비 환불 요구를 둘러싸고 자주 논란이 일었다.

게시판에서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나타내며 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회비를 환불해 가는 학생들 중에는 학생회비 납부의 불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학교에서 돈을 환불해 준다는 소문을 주위에서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재무회계팀에서 만난 4~5명의 한 무리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환불하러 온 돈이 학생회비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중 경영대의 모 학생은 "친구가 학교에서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다"며 "학생회비로 쓰이는 돈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구본훈(국교4) 군은 "강의실 선전을 통해 여러 학생들에게 학생회비의 목적과 용도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회전무대

#### X-파일

○...2006년도 정시 모집 요강은 일급기밀이라는데, 알아본즉 수능을 50여일 앞둔 지금까지 정시모집 주요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정확한 입시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수능반영 영역을 포함한 대략적인 입학전형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해 수험생을 배려해야 할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정시모집 요강, 올가을 컨셉은 신비주의(!)"

### 상대적 빈곤

○...우리학교 교수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섭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190여개 4년제 대학의 2005년 기준 교수연봉 현황에서 우리 학교는 중·하위권에 위치해 우리학교 교수들의 열악한 임금 조건이 드러난 것이라고.

타 학교에 비해 기본급이 낮은 것은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므로 치우개선에 힘써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교수사회에도 빈부격차 존재(!)"

### 공나물 시루

○...우리학교에서 공간 활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다름 아닌 금강관이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일반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은 운동선수들 6~7명이 좁은 방에 모여 생활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고.

운동선수들이 개인적인 목표달성과 함께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힘쓰는 만큼 기본적인 복지 환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복지향상은 선수도 춤추게 한다(!)"

### 복화술 수업

○...동국관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입모양으로만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동국관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요즘 전기톱 소리 등 공사소음으로 수업진행이 힘들다고.

동국관은 강의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강의실 이용률이 최고인 시간은 피해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동국관 한 강의실에서는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는 '메르시보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라고? 머루치 복음(!)"

## 졸업앨범 재촬영 일정 안내

9월 27일 : 경영대, 사범대, 문과대, 이과대  
9월 28일 : 공과대, 사과대, 법대  
9월 29일 : 정산대, 예술대, 불교대, 생자대  
9월 30일 : 아간대

○ 시간 : 11시 ~ 4시 (단, 아간대는 18시 이후)  
공강시간을 이용해서 찍으세요 ~ ~

○ 장소 : 중앙도서관 입시열람실  
○ 주의 : 아간대는 야외촬영이 없음  
○ 대상 : 영어PASS제 대상자 및 일반모의토익 신청자  
※ 재촬영 신청 추가신청 받고 있습니다!!

○ 앨범비 납부 69,000원  
1. 졸업준비위원회에 직접납부 후 영수증 수령  
2.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해진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시 과, 이름을 필히 써주세요)

### 졸업준비위원회

## 2005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제출 안내

- 대상자 : 200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포함)
- 논문제출 기간 : 2005년 11월 4일(금)까지
- 제출처  
가. 주전공 : 각 학과(전공) 지도교수님께  
나.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 각 학과(전공) 사무실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
- 논문 심사 결과 : 2005년 11월 24일(금)까지
- 논문심사 결과일력 : 2005년 12월 2일(금)까지
- 논문심사결과 확인 : 2005년 12월 12일(월) 이후 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가. 논문 하나로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인정 불가  
나. 위 기간에 논문 미제출자는 학위수여 불가

### 교무처

## 동국 백상기 야구대회

동국대학교 아마야구의 최강을 가리는 대회가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학과, 소모임 및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에 상관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 대회기간 : 10월 7, 10, 11, 12, 13일 오후 5시  
▶ 대회장소 : 대운동장  
▶ 참가비 : 10만원  
▶ 접수기간 : 9월 21일 ~ 9월 30일

※ 우승팀 ⇒ 알루미늄 배트 증정  
※ 소모임과 비소모임 예선 경기 차별 (구분) 배정  
※ 참가팀 모두에게 기념티셔츠를 드립니다.  
※ 연락처 : 010-6287-3632  
011-9015-9674  
www.laelife.com

☆ 장비 대여해 드립니다 ☆

### 동국대학교 아마추어 야구부

##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 창립총회 안내

동국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도시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국대학교 동문이 무려 1천여 명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모교 동국의 정성적 공감대인 불교에서는 웃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사회에서 동문간으로 다시 만난 그 자체로서 즐겁고 행복한 울타리입니다.  
용인을 머리에 이고 이곳으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국적인 바깥에도 학적은 바깥 수 없다"는 말처럼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12일 수지의 한 음식점에서 40여명의 선배동문들이 참석 한 가운데 발기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동문회 한자리에 모여 선배배간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동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느껴봅시다.

창립총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5년 9월29일(목) 오후 7시  
장소 : 대발뽕(Tel 031-263-4700 / 용인시 수지출장소 앞 수지농협 지하)  
회비 : 3만원  
발기인회 간사 : 동국대 대학협력처 신관호 (02-2260-3885/011-793-7749) 변호사 오수원 (031-321-4066/011-373-9699)

\*자동차는 용인시 수지출장소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열면이용/18시 이후 무료)

동국대학교 용인 동문회 발기인 일동 대표 박 만 김

[발기인 명단]  
이석용(88정치) 정대진(83법학) 신상수(84법학) 이장근(86농학) 조정현(88경행) 박민길(88정의) 윤길환(88정의) 이범일(88정의) 홍성목(88식공) 김상화(88상학) 이토희(89상학) 고명주(70경행) 김성수(70경행) 장준영(70경행) 우태주(70경행) 이필구(70경행) 황영길(70경행) 강길희(72경행) 김한배(72연료공학) 신관호(73경제) 전병철(75경제) 장동락(77정의) 김선재(77재교) 유재성(79경제) 정만모(81토목) 맹일순(83법학) 오수원(88법학) 김중진(89사회) 전만식(89사회) 김태현(89국교) 백낙헌(89국교) 김명철(행민) 오길원(91경행) 최정태(91경행) 이승복(92경행)

대학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①기존대학평가 문제점 진단

일괄적인 평가기준 부재 가장 큰 문제

대교협 - 명확한 기준없는 정성평가 문제

중앙일보 - 지나친 정량평가로 비판받아

정부가 오는 2006년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치 방침을 지난 6월 발표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불만이 올해 들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교협이 주최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는 신뢰도 문제 외에 대학들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고 대학서열화 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 각종 대학평가 결과, 왜 믿을 수 없나 =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적인 평가 기준

이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대교협대로,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대로 각기 다른 평가 기준으로 같은 대학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순위로 매겨져 사회에 발표됨으로써 매년 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대교협은 명확한 기준 없는 정성평가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중앙일보는 너무 정량적 평가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무엇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학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교협의 명확한 기준 없는 정성평가는 각 대학들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실정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기존의 대학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평가 제도는 문제점 개선보다는 대학평가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바로 순위가 매겨진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학평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원형태로는 정부의 재원지원과 자율권 부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형태는 자칫하면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대학통제 강화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 준비를 위한 외형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됨에 따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까지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평가체계의 간소화 역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10일 대교협에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대교협은 다음달 20~23일에 걸쳐 현장 방문조사를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대학종합평가 결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발표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동약로

어긋난 절차



지난 1학기 우리학교는 65명의 정원 감축을 진행하며 몸살을 앓았다. 그 과정에서 국제학과가 폐지됐고 두개의 학과가 통합되거나 정원이 축소된 학과들도 있었다.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조정 후 폭풍도 상당했다. 구조조정이 확정돼 실시된 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해 각 학과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학교와 교수, 학생들의 의견도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단연 가장 큰 이슈는 국제학과 폐지였다. 국제학과 학생들은 철저히 학교 폐지 논의과정에서 배제 당했고 국제학과 교수들은 계속해서 학교와 엇갈리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교는 국제학과 폐지가 교수들과 논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수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여간 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시험기간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춥거나 덥거나 천막농성은 계속됐고 그들은 '국제학과 폐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과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국제학과 학생들을 무시했다.

여름 방학 때 국제학과 학생들은 총격이 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한번 뒤투수를 얻어 맞는 일을 당했다. 현재 국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학교가 국제학과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타과로의 전과를 권유한 것이다. 또한 학교가 없었더라도 연계전공으로 국제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달리 이번학기 복수전공 신청에서도 국제학을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국제학과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국제학 복수전공 신청자 접수를 받았다.

정원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에서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학내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다음 구조조정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구조조정이 한번 치르고 마는 일이 아닌 이상,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구조조정 절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아 기자 brightah@dongguk.edu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 27일 개원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병원 내 대강당에서 정식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식은 이사장(김현해) 큰스님,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이석현 의무원장을 비롯 현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스님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은 수많은 불교신자와 우리학교 동문들의 힘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은 양·한방 함께 진료할 수 있는 전국 규모로는 최초의 대형병원이며 동서의학 및 제3세대 의학 표본병원으로서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건강증진센터 및 퇴행성질환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문서 없는 병원', '완전 전산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양·한방을 한 곳에서 진료하는 전국규모의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전혀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기록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ing)시스템을 구축했다.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의 역사는 지난 9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10 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진료를 시작하고 드디어 오는 27일 정식개원하는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



교수님 힘내세요... 강정구 교수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가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철회운동에 동의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있다. 최민희 기자 mh0705@dongguk.edu

Kim's video, 영화관련 VHS 기증 관련 학문에 자료로 활용 기대

미국 뉴욕에 소재한 대형 영화매체 유통업체인 Kim's video가 대량의 영화관련 VHS를 우리학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10873종 14000점으로 1920년부터 최근까지 출시된 영화관련 VHS이다. 이와 관련해 Kim's video 측은 "영화·영상관련 학문발전을 위해 기증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인해 중앙도서관 영상자료의 가치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영상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사업'의 유용한 자료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증받은 VHS자료는 CD와 DVD로 변환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과대학별 JOB 트레이닝 워크숍

취업지원센터(센터장=조의연)에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 잡 트레이닝 워크숍을 실시한다.

신청은 각 학과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받는다. △정산대, 사과대=30일 △이과대, 생자대=10월 12일 △법대, 문과대=10월 20일 △불교대, 예술대=10월 31

일이며 단과대학 별로 30명을 모집한다.

취업지원센터 상담원이 3일 동안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째 날=취업 역량분석 △둘째 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셋째 날=면접클리닉이 실시된다. 각 단과대학 교육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 with 3 columns: 단과대학명, 교육일정, 시간.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respective training dates and times.

다독상 수상자 김대현(정통3) 군 인터뷰

"독서의 재미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

책을 많이 읽는 대학생들이 드문 요즘, 더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중앙도서관(정진환·교육학)에서 제정한 '다독상'을 수상한 인문과학분야=박지현(일반대학원 미술학) 양, 사회과학분야=장현중(법학 4) 군, 자연과학분야=김대현(정통3) 군 이다. 그 중 자연과학부분 다독자로 선정된 김대현 군을 만나 그만의 독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행을 다른 책을 주로 좋아하는데 평소 접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재미를 느낀다. 얼마 전에 읽은 '살인자들의 인터뷰'라는 책도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색달랐기에 흥미롭게 읽었다.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 노하우를 담은 에세이 종류도 즐겨본다. 특히 일본 젊은이 11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청춘표류'라는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한 책을 읽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다독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다.

터 읽는 것이 좋다. 일단 목차를 훑어보고 앞부분 내용을 간략히 읽어 사전정보를 파악한 후 읽을 책을 선택한다. 책을 읽는 중에 맘에 드는 문구가 나오면 밑줄을 그으며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고 노력한다. 독서 시간을 따로 정하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만의 책 읽는 방법이 있다면 =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부

정명아 기자 brightah@dongguk.edu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중구 장충문화체육센터 회원모집

회원가입문의전화: 2264-7624/5

쾌적한 독서 공간~ 활기찬 헬스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는...

- 조용하고 아늑한 독서실과 옥상공원 및 휴게실 설치
■ 유산소 운동기구, 웨이트 운동기구 등 최신의 운동 기구 준비
■ 전문 헬스 트레이너와 전문화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용자 개개인의 체력과 운동요구에 알맞은 과학적인 지도

독서실 이용안내

- 이용회비 : 1회 입장시 500원
이용대상 :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 중구민 누구나

독서실은 남자 126석, 여자 120석으로 최신의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쾌적한 인테리어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귀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헬스센터 회원모집

- 회원모집 : 기존회원 9월 25일~27일, 신규회원 9월 28일~말일까지
참여대상 : 중구민 누구나
참가회비 : 1개월 회비 - 35000원, 1일 이용회비 - 3000원



운영시간 및 회원 접수시간

헬스장/독서실 : (월~토) 06:00 ~ 22:00 (일, 공휴일) 09:30 ~ 18:00

- \* 헬스 월 회원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독서실 이용 중 소지품을 가지고 퇴실한 경우에는 이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장 정리를 위해 주 1회 휴무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전문적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강사진
장충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

대학주변환경 실태조사

# “대학가 = 유흥가?”

## 오명벗고 교육·문화의 거리로 변신계획 진행



▲ 술집과 음식점 등이 난립한 우리학교 후문의 모습. <일라스트 = 현>

언제부터인가 '대학가=유흥가'라는 등식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인식되고 있다. 저녁시간이면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 금세 유흥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낮에 '설편' 하던 거리가 밤이 되면 번쩍이는 간판 그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대학가를 뒤덮는다. 학문의 받침대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가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업소로 들러싸여 있다. 하지만 학습관련 업종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가는 상업주의에 치우친 개발로 비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가에 비교육적인 환경이 침투하게 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학 안에 기숙사, 생활용품제공, 만남의 장소 등의 기능이 부족하다. 대학생들은 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대학가는 소비지역으로 변했다. 동시에 대학촌다운 개발을 유도하는데 제도의 미비점과 교통 혼잡, 무질서한 공간 이용에 대한 행정적 방치로 건전한 대학환경이 보장되지 못했다. 대학도 그동안 대학안의 시설개발과 공간이용 관리업무만 수행했고 대학가의 개발문제는 깊은 관심이나 영향력 행사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학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학교 주변에서 식당, 술집, 노래방, 게임방 등 먹고, 마시고, 노는 가게를 빼면 상가 지역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중문과 후문에 노래방 10여개, PC방 10여개, 술집 50여개가 넘고 식당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습관련 업종은 복사집과 1개의 서점이 전부다. 우리학교 후문쪽에 위치한 녹두서점 이윤상 직원은 "서점을 시작하지 20년째지만 해가 지날수록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며 "90년대보다 매출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한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가 서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유흥문화의 질주로 대학가는 황폐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들어 시내대학가의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가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을 정비대상으로 선

정하고 이번해부터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박일영 직원은 "대학과 지역주민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교육·문화환경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대학문화에 도입되는 시설을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각 대학별 특색에 맞춰 테마별로 개발된다. △고려대=동북지역 대학 문화벨트 거점 △성균관대=전통문화 육성·보존 △중앙대=열린대학가 조성 △한양대=왕십리 민자역사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주변상권 정비 △홍익대=문화예술 중심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이화여대와 경희대는 다음달까지 계획이 완료된다. 대학가 환경개선 사업은 가로등과 안내판 등 가로환경 시설물, 보도 등을 개선했다. 또한 대학가 주변 업주들의 협조를 받아 광고물 정비나 리모델링 등 기존 건축물 수선, 외관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도 다음해부터 교육·문화환경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우리학교는 영상분야가 특성화된 만큼 국립극장-중구청-충무로 영상센터를 잇는 문화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의 김윤길 팀장은 "강남 등 다른 지역에 분산된 영상산업이 우리학교 주변으로 재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문지역의 도로확장과 주변환경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우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사학법

## 사학법 진지하게 고민하자

급물살을 타다가 싶던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이 지난 16일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기한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대립이 격화하자 심의기한을 연장하고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다음달 19일까지 양당 협의의 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개방형 이사제'와 '공영이사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한나라당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 이사회가 추천토록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사 정족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토록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조계종 총림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전체 13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조계종 재직승려로 선출된다. 9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총장, 총동문회 2인, 불교계 인사 1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우리학교는 스님이사들간의 계파 대립이 생길 경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의 최종결기구인 이사회가 학교 발전에 전력하기 보다는 계파 대립의 구조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에 개방형 이사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보다 행정적인 경원이 풍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사제도를 개방형으로 확대해 새로 능력있는 사람을 들이는 것이 학교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도 한해 법정부담금이 약 27억 정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5억 원대에 그쳐 20여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부금 등 다른 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를 밑돌고 있어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법제화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사학 법인들은 사학법 개정을 사유권 침해로 규정하고,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며 말한다. 하지만 학교는 엄연히 공공의 재산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운영은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에 틀림없다. 사학을 발전시키는 길은 사학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다.

### 외국대학 주변환경

# ‘공부하는’ 학생 위주로 문화 형성돼

세계의 내노라하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대학들은 어떠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초 개발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캠퍼스가 무척 넓고, 그 주변은 대학과 학생들의 생활을 위주로 형성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 산타바바라(Santa Barbara)는 이 곳에 위치한 대학들이 많아 주택가도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마련돼 있다. UC얼바인(Irvine) 대학에서 유학을 한 우리학교 전경희(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형 슈퍼마켓, 책방, 극장, 가볍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펍(pub), 식당가, 상점 등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다", "계획도시이다 보니 조정 및 구획정리가 매우 잘 돼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 주변이 모두 대학 중심의 생활권이라서 시험기간에는 식당도 24시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방학기간이면 주택들이 텅 비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이나 뉴저지에 위치한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시내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점들의 성격이 유흥적이기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점들이 들어서는 것이다. 반면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에 자리한

콜롬비아 대학이나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대학의 주변환경은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특별하게 없는 등 일반적인 대도시의 대학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큰 사립대학들은 대학자체적으로 주변환경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건축공학) 교수는 "대학이 캠퍼스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에 투자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좁은 국가 면적을 가진 유럽의 대학은 미국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 프랑스의 남시(Nancy)에서 유학한 유정주(법92졸) 동문은 "프랑스 사람들은 인식부터 대학 내외에 상점 등 편의시설이 입주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편이다"라며 "대학 문을 나

서면 그 주변은 공공건물 등이 위치해 조용한데, 그 불룩을 지나가면 삼점이나 쇼핑가, 펍 등이 위치해 일반 시내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과도한 술 문화는 보기 힘들며, 카페테리아 펍에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라고 설명한다. 한편 영국의 옥스퍼드는 '마을 전체가 대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대학 건물이 넓게 펼쳐져 있다. 또한 100년이 함참 넘는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학구적인 분위기 또한 살아 있다. 이렇듯 해외 대학들은 각각의 역사·지리·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대학 주변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공부하는' 학생 위주로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가들도 이제는 학문과 연구가 중심이 되는 대학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동국만평

정명근 gmgs@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부주장: 김세곤  
 편집국장: 정경호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2006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모집

###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표기 학과는 경주캠퍼스 개설 학과)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경영정보, 관광·호텔,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경영정보, 관광·호텔, 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산림, 자연, 생물, ★조경, 가정, ★간호, ★생명공학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산림, 자연, 생물, 가정, ★조경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학계	★한의, ★의	★한의, ★의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전자상거래(경제, 국제금융, 정보산업)	-

### ■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5. 9. 26(월) ~ 10. 7(금)  
 가. 장소: (1)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받아 지원할 수 있음  
 (2) 서울캠퍼스: 대학원 행정지원실(학술관 1층)  
 (3) 경주캠퍼스: 사회과학 대학원 행정지원실(진흥관 1층)  
 (단, 평일 17시 이후 및 토·일요일은 학술관(서울), 진흥관(경주) 수위실에서 교부함)
- 원서접수:  
 가. 인터넷 접수: 2005. 9. 30(금) ~ 10. 5(수) 17:00시 까지  
 나. 방문접수: 2005. 10. 4(화) ~ 10. 7(금) 9:00 ~ 17:00시 까지  
 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전형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체국 통상환을 발급받아 원서,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확인전화 필)
- 전형일지: 2005. 10. 15(토)
- 합격자 발표: 2005. 10. 28(금) 14:00 예정 (홈페이지 공고)

### ■ 장학

-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각종 조교장학, 조교장학(연구, 교육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 화학, 물리, 수학, 생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과 장학금 지급
- 본교 학·석사 출신 입학생 전체에게 입학금 면제(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대상)
- 국문, 반도체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과 장학금 지급
- 학생회 집행부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TEL 02-2260-3094 ~ 5, 3115 ~ 6  
 FAX 02-2260-3685  
[www.dongguk.edu/gs](http://www.dongguk.edu/gs)

# 자동인형에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 1939년 최초 탄생 ... 추론 능력 가진 로봇 머지않아 현실화

21세기 과학기술의 특징 중 하나는 엄청난 발전 속도다. 컴퓨터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인간 계승지도가 예상보다 빨리 2001년에 완성됐고 정보기술 및 나노 분야의 발전상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아마도 앞으로 10년간의 과학기술 발전이 지금까지 인류역사를 통틀어 이룩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능가하는 업적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과학기술 발전은 점차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의해 개발된 창조물들에 인간의 여러 인지능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지능화된 생활환경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노 바이오 정보기술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혁신기술들을 적절히 융합(convergence)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형 로봇기술이 있다. 정부는 2003년에 인공지능형 로봇산업을 한국의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선정할 바 있다.

인공지능이란 여러 형태의 지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로 분류된다. 로봇은 인조인간(人造人間)이라고도 하며 본래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 내부에 기계장치를 조립해 넣고, 손발과 그 밖의 부분을 본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작하는 자동인형을 가리켰다.

언제쯤 인공지능형 로봇의 시기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인공지능형 로봇 분야 자체가 미래에 엄청난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다.

로봇의 발전사를 보면 1939년에 최초의 로봇이 탄생하였으나 지적능력은 없었다.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인 최초의 로봇 엘레트로노는 전원을 넣으면 77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앞으로 뒤로 움직일 정도였다.

2010년에 탄생할 로봇의 경우는 지적능력은 도마뱀수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청소나 배달 그리고 공장에서 현재보다 조금 더 확장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0년에 탄생할 로봇은 지적능력이 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로봇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 학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할 수 있는 작업은 이전과 유사하나 더욱 유연해지고 신뢰성이 있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2030년에 탄생할 로봇은 지적능력이 원숭이 수준이 될 것이며 로봇은 일반적인 사물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계란을 집을 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정도) 또한 로봇은 인간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2040년에 탄생할 로봇의 경우는 지적능력이 인간 수준이 될 것이며 로봇은 대화를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생각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있다. 이 때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추론 능력을 가진 유능한 로봇이 탄생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신의 손과 발의 상태를 눈을 감아

도 알 수 있다. 그것은 피부감각이나 관절감각, 근(筋)이나 건(腱)으로부터의 감각 등이 중추(中樞)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외계의 상황은 눈이나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형 로봇에는 이런 것에 필적하는 감각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제작된 로봇 가운데는 인간형 손발을 가지고 텔레비전 카메라의 눈, 인공의 귀·입, 촉각, 관절감각 등을 갖추고, 2~3세 유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방에 있는 물건을 찾으라고 말로 명령하면 실내를 돌아보고 찾아내서 말로 대답하고, 두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집어 온다. 이렇게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로봇을 지능 로봇이라고 한다.

특히 시각의 기능만을 가진 로봇을 시각로봇이라고 한다. 산업용로서는 조립로봇이나 검사 로봇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물건을 조립할 경우에 치수나 모양 등이 고르지 않은 수많은 대상물 가운데서 필요한 2개의 물건을 인식, 선택하여 그것을 요구된 형태로 조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 지능에 속한다.

이러한 지능 로봇의 연구를 쌓아간다고 해도 이상적인 로봇의 실현은 아직 미지수이다. 인간의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아직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어 있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원리상 인간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최관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 詩

김강태

동대문 시장으로 뽀뿌링을 사러 나왔습니다. 엄마의 청과 내음 나는 뽀뿌링 그 빛깔이 워낙 화사해서요. 외면하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겨울 잠옷을 사려던 참이었는데요. 만지면 그 흰 빛깔이 꼭 때 묻을까 하여 그 애 등에 업혀서 돌아왔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은 종이배와 빙사시대가 빛을 뿜으며 가리던데요. 상치 내음새 나는 그 뽀뿌링을 서로 포개 먹으며 우린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 브로우치를 가슴에 달아드릴까요.

- 願往生 願往生 열두 章 其 一 -

김강태(1950-2003)가 펼쳐놓는 시의 좌판은 대부분 '날것'으로 그득했다. 거기에 밭에서 막 뽑아온 남새의 싱그러움이나 지금 막 고깃배에서 부러진 활어의 생동감이 있었다. 하여, 그의 단골들은 김강태가 지어내는 언어의 선도(鮮度)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곤 했다. 어떤 이는 그의 물건에서 새벽의 풀내음을 맡는다 했고, 어떤 이는 비 오는 날의 비릿한 공기를 느낀다고 했다.

시의 상인 김강태는 어떤 물건이건 직접 떼어다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좀 더 나은 '시어'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인천보다 목포바다를 가리지 않았다. 시의 낚시대를 들고 동가식 서기숙(東家食西家宿)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모두가 공명해 했다. 이번엔 무엇을 잡아오려나? 그 트실한 언어의 그늘에는 어떤 대어가 올라오려나?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손님들을, 그는 배반하지 않았다. 특유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새로운 시를 들고 나타났다. 바닷물이 푹푹 떨어지는 시,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퍼덕이는 시를 보여주었다. 대개 화요일이었다. 학교신문이 나오는 날이었다. 이 작품도 '동대신문'에 처음 소개된 시였다. 그의 국문과 3학년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요즘은 통 그를 볼 수 없다. 자취를 감춘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좀 더 먼 곳으로 물건을 때려 간 모양이다. 동대문 시장에서 '뽀뿌링(또플린, poplin)'을 고르고 있는 걸까.

윤계림  
시인, 서울예대 교수

## 로봇, 인간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개체

## 노예 아닌 새로운 '생명체'로서 존재이유 부여해야

2003년 8월 전세계에 매우 상징적인 뉴스 하나가 타전되었다. 체코 정상회담이 열린 체코 프라하의 흐르잔스키궁에 일본의 최첨단 인간형 로봇 '아시모(ASIMO)'가 정상회담 국빈단전에 참석 한 것이다. 아시모는 이날 만찬장에 들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체코 총리와 악수한 뒤 체코어로 "나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체코에 일본 친선 사절의 일원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동행했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 사건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자동화 기계'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개체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1942년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로보틱스(robotics, 로봇공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화 '아이 로봇'에서도 나오는 로보틱스의 3가지 법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인간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겠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이나 인공지능 연구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아시모프는 그의 소설을 통해 로봇이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로봇은 1956년 최초의 로봇회사인 유니메이션(UNIMATION)이 설립된 이래로 사람대신 어렵고 힘든 반복작업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

봇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70년에는 최초의 인공지능 이동 로봇 세이키가 제작되었고, 1973년에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최초의 산업용 로봇 T3가 상용화되면서 로봇 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 전투 로봇, 가정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래의 로봇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차페크나 아시모프가 로봇을 창조해내면서 상상하였던 인간의 지능을 가진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미 일본의 P3나 아시모, 우리나라의 센토와 아미와 같이 21세기 차세대 로봇 개발의 방향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옮겨갔고, 2000년에는 지혜를 가진 로봇, 즉 '로보 사피엔스'가 출현하여 소프트웨어로 만든 인류의 지식·문화·가치관 등 정신적 유산을 모두 물려 받게 되고 인간을 추월해 지구의 주인이 된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로봇의 탄생과 발전, 미래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보호의 욕구와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담겨있다. 즉,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로봇이라는 '노예'를 탄생시켰고, 완전한 노예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같은 사고와 지능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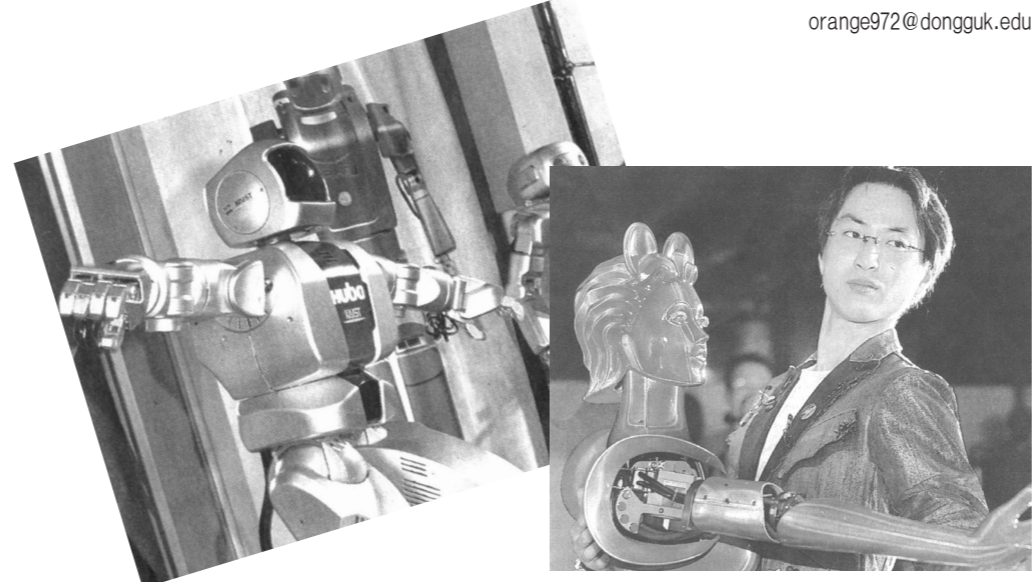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고,

로봇에게는 인간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보호의 욕구는 오히려 인간에게 '자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인간 문명의 개발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한 각종 문명의 이기(利器)들은 이미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인간의 난치병 극복과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복제의 논란은 생명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동물과 식물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복제인간이 될 수 있으며, 로봇이라는 새로운 생

명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강요된 희생'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인간의 자기보호 욕구가 스스로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봇에게 인간만을 위한 '노예'로서가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그 존재이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오규철 객원기자(경찰학 박사과정)  
orange972@dongguk.edu



### 도서관 이용 팁

도서관 이용, 100% 하고 있나요? 지난 학기 중앙도서관 통계를 보면 졸업생이 총 16만 9천 697명, 대출은 16만 7천 259권에 달하고 있어 이용이 무척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모든 시설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도서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많은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 ◆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 경우
  - 1) 우리학교에 소장 되어있지 않고 구입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다른 대학에서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면 그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My Library ⇒ 타대학 열람의뢰서 ⇒ 필요사항 입력 ⇒ 출력 ⇒ 타대학 도서관 자료 이용
  - 2) 원문복사 이용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너무 먼 곳에 있을 때 도서관에 해당 자료의 원문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사비와 우송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이용자 서비스 ⇒ 원문복사신청

자료제공=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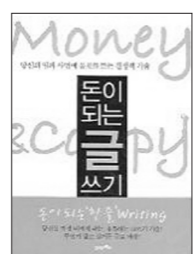
### 중앙도서관 신착도서



**시간흡혈귀를 퇴치하는 유쾌한 방법**  
댄 케네디 지음 / 서영조 역  
랜덤하우스중앙, 2005

늘 시간에 쫓겨 허덕이며 살지 않으세요? 시험이 마다 날짜가 갑자기 코앞에 닥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난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이런 생

각을 안해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듯. 그것은 당신이 무능해서도, 일이 넘쳐도록 많아서도 아니다. 모르는 사이 시간흡혈귀들이 아금아금 당신의 시간을 빨아먹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을 둘러싼 시간흡혈귀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퇴치법에 대하여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시간관리 기법에 대해 나온 자료들이 개인의 성실성과 치밀함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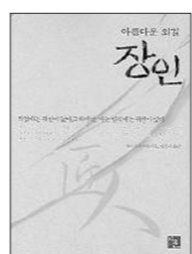


**돈이 되는 글쓰기**  
송숙희 지음  
21세기북스, 2005

현대인에게 글쓰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눈술이 대학입시의 당락을 좌우하고, 입사를 하려면 이력서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이고, 기획에서부터 각종 레터 작성, 명함, 가게 이름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글쓰기는 이제 경쟁력의 바로미터이다.

이 책은 우리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상황에서의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따져보면 한결을 차이이다.

글 잘 쓰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하여 꼭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길.



**아름다운 외직장인**  
에이 로우스케 지음 / 양은숙 옮김  
지훈, 2005

"목공이나 도공 등과 같이 손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사전에 실려 있는 장인의 정의이다. 하지만 요즘 생각하는 장인의 정의는 그보다 좀 더 진일보하여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지칭하고 있다.

이 책은 평생 외직을 고집해온 일본 장인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 기록한 '일본 전통문화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과 인명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장인의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지킴이 계승'이라는 면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다. 우리 장인에 관해서도 이렇게 세세하고 충실한 자료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지음  
푸른숲, 2005

바람의 딸, 한비아. 이 책은 5년간 NGO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뢰밭에서, 이란 지진의 현장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쓰나미의 현장에서 그녀가 수행했던 구호활동의 보고서이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저 산맥을 넘었을텐데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 산맥을 넘나드는구나. 양쪽 다 전쟁은 전쟁이다. 한쪽은 진짜 전쟁, 한쪽은 구호전쟁. 전쟁에서는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총칼로 하는 진짜 전쟁처럼 식량과 사랑으로 구호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일한다 (본문 61쪽)" 이세상은 더 이상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녀는 얘기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 할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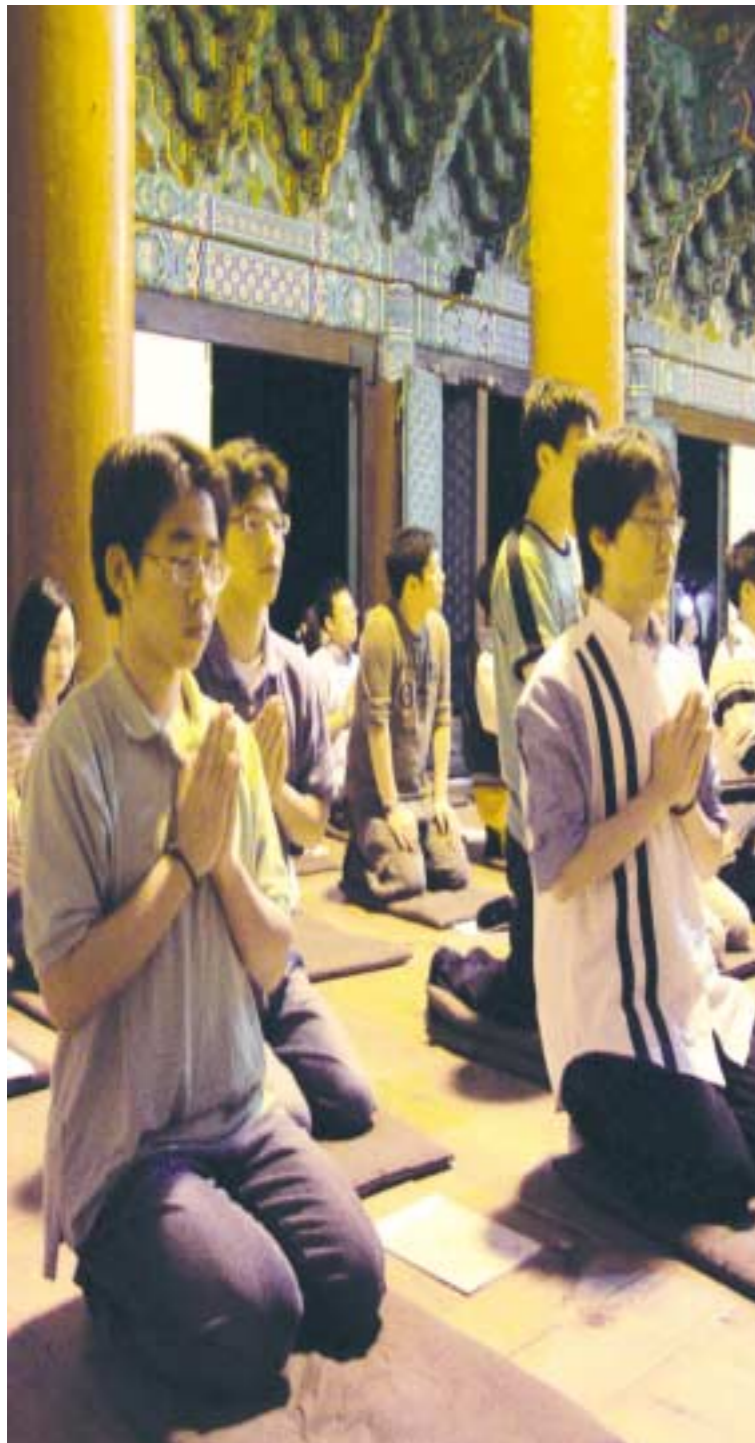
# 대학에서 만난 불교의

대표적 불교 종립 대학인 우리학교에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곳곳에서 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 이에 지난 9일 부터 1박 2일 간 진행된 명찰순례와 매주 수요일 학림관에서 개최되는 사찰 음식 조리 강좌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 마음을 비우고 불교를 '느끼다'

▲ 송광사 전경.



▲ 새벽예불을 드리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명찰순례 동행 취재기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새둥지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송광사. 고려시대 한국불교를 증흥시킨 보조국사지눌 스님이 도를 닦았던 곳으로 유명한 이 사찰은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 이전에 이 곳은 대표적인 우리학교 17개의 건학 기어 사찰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동국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학교를 출발해 5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사찰에서 일행을 처음 반기는 것은 암흑과 적막이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참가자들 모두 숙연한 절의 분위기에 저절로 말을 잃고 발걸음 역시 한걸음, 한걸음 조심히 밟으려 애를 쓴다.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아침 예불을 드려야 해서 9시 이전에 모두 수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라며 밤 11시를 훌쩍 넘은 시간에 도착한 일행들을 꾸짖는 한 노스님. 하지만 이내 학생과 직원들의 잠자리를 직접 안내해 주는 모습에서 산사의 엄격함과 자비로움이 느껴진다.

####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해 보려고 참가했어요"

각자 집을 풀고 수련회와 템플 스테이 등을 위해 집을 찾는 수련생들을 위해 따로 지어진 법당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40여명의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모여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걱정하며 법당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몇몇의 학생들과는 달리, 이미 법당 안 곳곳에서는 처음 만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가자들이 눈에 띈다. "우리학교 천주교 동아리 회장인데, 불교 종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불교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가하게 됐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대학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통성명을 위해 한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참가 계기는 다양하기도 하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아침 예불을 알리는 북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자 스님들과 참가 학생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웅전에 모여든다. 뒤로는 웅장한 산과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해도 마음이 짝 차 오른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스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법문을 외울 때에는 가만히 책을 바라보던 학생들이 익숙한 법문

이 흘러나오자 서툰 숨쉴로 목탁 소리에 맞춰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 예불이 끝나고 경내에 있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적막'의 시간이 밀려오자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참선의 시간을 갖는다. 몸을 곧게 세우고 진지하게 참선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마음속 번뇌를 지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자, 지금부터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불평 없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조금 벅차게 느껴질 수 있는 108배를 시작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대웅전을 감싸고 푼다. 오로지 자신이 임하고 있는 수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불현듯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수련이나 명상은 이미 수련이 아닌 집착일 뿐이라고 말했던 한 스님의 법문 내용이 떠올랐다.

108배를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이 경내를 빠져나가기도 일부의 학생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거나 계속 절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진지함이 전해져 온다.

#### "건학기어 사찰을 찾은 학생들, 대견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새벽 6시가 되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공양간(식당)에 모여들었다.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는 식단은 스님들의 음식인 검은 죽과 물김치, 나물 등 조촐하지만 정갈함이 느껴진다. 식사를 하던 양아래(영문3) 양은 "평소 잘 접해보지 못했던 스님들의 음식이 산사의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인지 더욱 맛있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조금 꺼리던 검은 죽 한 그릇을 모두 비우며 밝게 미소 짓는다. 실제로 일부 템플 스테이 등의 사찰 체험에서는 소리 없이 음식을 다 먹고 자신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김치 조각으로 밥과 국, 반찬그릇을 씻고 난 후의 물을 깨끗이 다 마시는 발우공양으로 참가자들을 수행시키기도 한다.

날이 밝아오자 그동안 암흑 속에서 빛을 드러내지 않던 사찰 주변 경관이 속속 제 모습을 드러낸다. 웅장한 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산사 풍경에 참가자들은 절로 감탄사를 내뿜는다. 이 절의 신도회장으로 있는 광종형 씨는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 광대경 교수의 부친으로 그 누구보다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는다. "동국대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건학

기어 사찰을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찾아온 학생들이 대견하네요"라며 사찰의 경내, 외를 직접 학생들과 함께 돌며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설명 중에 특히 참가자들의 발걸음 머물게 한 곳은 사찰 한편에 자리 잡은 아담한 규모의 박물관. 70여 평 규모의 박물관은 목조삼존불감 등의 국보 3점과 보물 13점 등이 전시돼 있을 정도로 규모에 비해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전시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관리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며 큰 관심을 보인다.

#### 특화된 문화행사로 나아가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찾는 것으로 하고 일련 각자 집을 챙겨서 나오세요" 재촉하는 진행자의 말에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금산사로 향한다. 일행들은 1박 2일에 2곳의 사찰을 순례해야만 하는 빡빡한 일정이 부담스럽다는 눈치이다. 무거운 눈과 발걸음을 이끌고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 금산사 역시 대표적인 우리학교의 건학기어 사찰이다. 이 사찰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사찰의 보살이 직접 학생들과 절 곳곳을 돌며 역사와 의의 등을 설명해 주었다. "어디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절에 찾아와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무리 지어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반갑게 맞아 주던 금산사 대명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짧은 금산사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참가자들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1박 2일 쉴 틈 없는 일정에 지칠 법도 한데, 모두들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하다. "사찰 체험은 다른 학교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행사인 만큼 졸업 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는 한 참가자의 말을 들으며 올해로 13년을 맞는 사찰체험 행사가 우리학교만의 특화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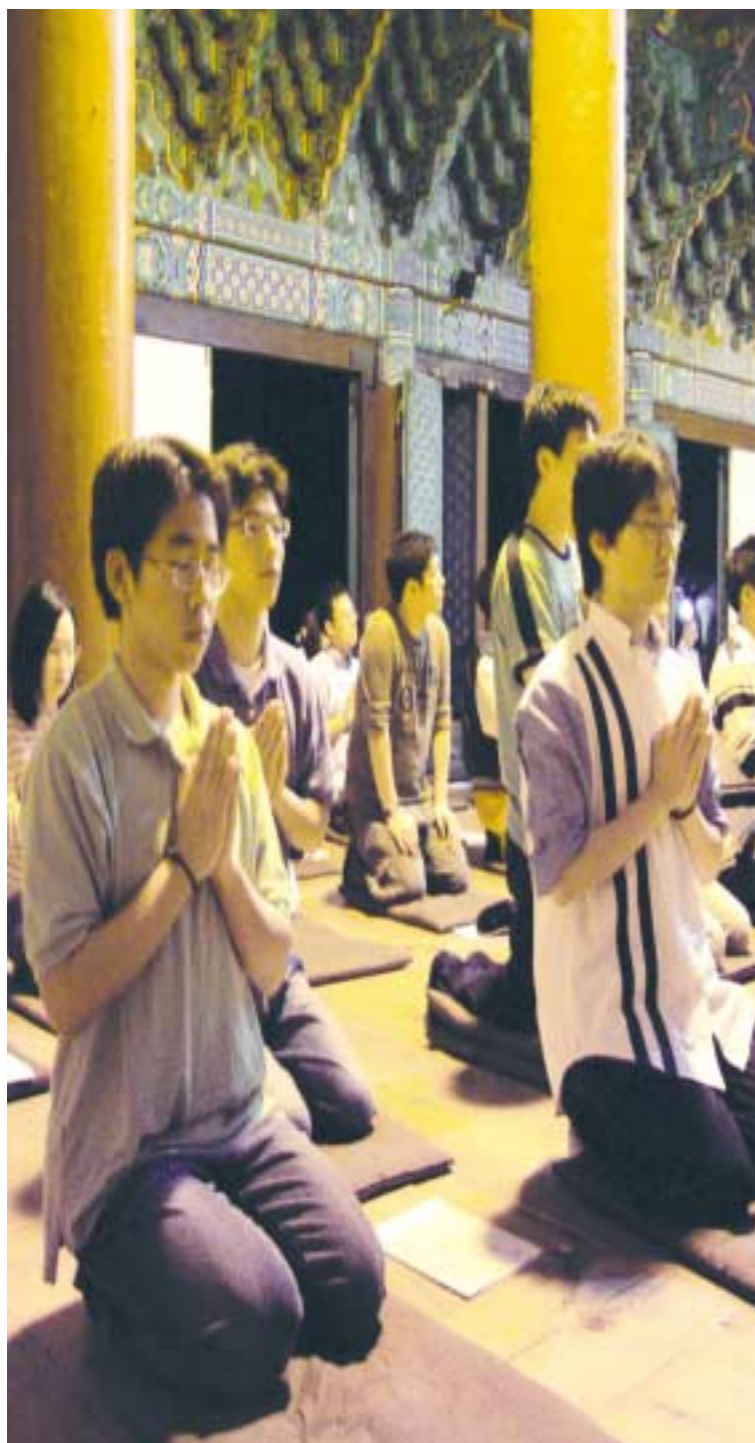
# 대학에서 만난 불교의

대표적 불교 종립 대학인 우리학교에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곳곳에서 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 이에 지난 9일 부터 1박 2일 간 진행된 명찰순례와 매주 수요일 학림관에서 개최되는 사찰 음식 조리 강좌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 마음을 비우고 불교를 '느끼다'

▲ 송광사 전경.



▲ 새벽예불을 드리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명찰순례 동행 취재기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새둥지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송광사. 고려시대 한국불교를 증흥시킨 보조국사지눌 스님이 도를 닦았던 곳으로 유명한 이 사찰은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 이전에 이 곳은 대표적인 우리학교 17개의 건학 기여 사찰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동국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학교를 출발해 5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사찰에서 일행을 처음 반기는 것은 암흑과 적막이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참가자들 모두 숙연한 절의 분위기에 저절로 말을 잃고 발걸음 역시 한걸음, 한걸음 조심히 밟으려 애를 쓴다.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아침 예불을 드려야 해서 9시 이전에 모두 수련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라며 밤 11시를 훌쩍 넘은 시간에 도착한 일행들을 꾸짖는 한 노스님. 하지만 이내 학생과 직원들의 잠자리를 직접 안내해 주는 모습에서 산사의 엄격함과 자비로움이 느껴진다.

####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해 보려고 참가했어요"

각자 집을 풀고 수련회와 템플 스테이 등을 위해 집을 찾는 수련생들을 위해 따로 지어진 법당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40여명의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모여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걱정하며 법당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몇몇의 학생들과는 달리, 이미 법당 안 곳곳에서는 처음 만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참가자들이 눈에 띈다. "우리학교 천주교 동아리 회장인데, 불교 종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불교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가하게 됐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대학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통성명을 위해 한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참가 계기는 다양하기도 하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아침 예불을 알리는 북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자 스님들과 참가 학생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웅전에 모여든다. 뒤로는 웅장한 산과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기가 해도 마음이 짝 차 오른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스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법문을 외울 때에는 가만히 책을 바라보던 학생들이 익숙한 법문

이 흘러나오자 서툰 숨쉴로 목탁 소리에 맞춰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 예불이 끝나고 경내에 있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적막'의 시간이 밀려오자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참선의 시간을 갖는다. 몸을 곧게 세우고 진지하게 참선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마음속 번뇌를 지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자, 지금부터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불평 없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조금 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는 108배를 시작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속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대웅전을 감싸고 푼다. 오로지 자신이 임하고 있는 수련에만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불현듯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수련이나 명상은 이미 수련이 아닌 집착일 뿐이라고 말했던 한 스님의 법문 내용이 떠올랐다.

108배를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이 경내를 빠져나가기도 일부의 학생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거나 계속 절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의 진지함이 전해져 온다.

#### "건학기여 사찰을 찾은 학생들, 대견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새벽 6시가 되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공양간(식당)에 모여들었다.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는 식단은 스님들의 음식인 검은 죽과 물김치, 나물 등 조촐하지만 정갈함이 느껴진다. 식사를 하던 양아래(영문3) 양은 "평소 잘 접해보지 못했던 스님들의 음식이 산사의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인지 더욱 맛있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조금 꺼리던 검은 죽 한 그릇을 모두 비우며 밝게 미소 짓는다. 실제로 일부 템플 스테이 등의 사찰 체험에서는 소리 없이 음식을 다 먹고 자신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김치 조각으로 밥과 국, 반찬그릇을 씻고 난 후의 물을 깨끗이 다 마시는 발우공양으로 참가자들을 수행시키기도 한다.

날이 밝아오자 그동안 암흑 속에서 빛을 드러내지 않던 사찰 주변 경관이 속속 제 모습을 드러낸다. 웅장한 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산사 풍경에 참가자들은 절로 감탄사를 내뿜는다. 이 절의 신도회장으로 있는 광종형 씨는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 광대경 교수의 부친으로 그 누구보다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는다. "동국대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건학

기여 사찰을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찾아온 학생들이 대견하네요"라며 사찰의 경내, 외를 직접 학생들과 함께 돌며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설명 중에 특히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곳은 사찰 한편에 자리 잡은 아담한 규모의 박물관. 70여평 규모의 박물관은 목조삼존불감 등의 국보 3점과 보물 13점 등이 전시돼 있을 정도로 규모에 비해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전시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관리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며 큰 관심을 보인다.

#### 특화된 문화행사로 나아가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찾는 것으로 하고 일련 각자 집을 챙겨서 나오세요" 재촉하는 진행자의 말에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금산사로 향한다. 일행들은 1박 2일에 2곳의 사찰을 순례해야만 하는 빡빡한 일정이 부담스럽다는 눈치이다. 무거운 눈과 발걸음을 이끌고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 금산사 역시 대표적인 우리학교의 건학기여 사찰이다. 이 사찰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사찰의 보살이 직접 학생들과 절 곳곳을 돌며 역사와 의의 등을 설명해 주었다. "어디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절에 찾아와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무리 지어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반갑게 맞아 주던 금산사 대명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짧은 금산사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참가자들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1박 2일 쉴 틈 없는 일정에 지칠 법도 한데, 모두들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하다. "사찰 체험은 다른 학교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행사인 만큼 졸업 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는 한 참가자의 말을 들으며 올해로 13년을 맞는 사찰체험 행사가 우리학교만의 특화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얼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학생회비 신뢰구축하는 학생회로 거듭나길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돼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제도 어렵는데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본 학생들이 난 정말 부럽다. 나는 아직 학생의 의무를 포기할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회비 8천원. 등록금 납부 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 부모님이 모르신 채 납부했다고 환불해 가는 학생. 자신들을 대변하는 기관인 학생회에 내는 8

천원이 그리도 아까우신가요. 학생들의 대표기관인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학생자치기구는 축제기간에는 대동제를 준비하고 추석이면 한가위한마당, 귀향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토익, 한자특강 등 학생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우리들의 등록금이 부당하게 인상됐으면 이에 대해 학교 측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국 1만 2천 학생 중 이 같은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한 학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학생회비.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만 작년과 같이 대동제 때 학교 측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돼도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구축일 것이다. 진부한 말일지 모르지만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박윤아(사과대 신병3)

## '가을'을 즐길 여유 갖자

### 천천히 등교하자

예전에는 학교 가는 것을 왜 '등교'라고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등교'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이 없다. 아니 '등산'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매일 학교를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힘들지 않게 등교하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다.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인 우리의 현실에 이 방법은 무리인 듯하다. 이 다음으로는 학교를 오를 때 지그

재그로 아니면 '세월아' 하며 천천히 걷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힘든 언덕을 빙겨서 걷게 되고 또 무리하게 하체를 움직일 일도 없으므로 그리 힘들지도 않다. 또 우리학교에 보이는 풍경의 변화가 아름다워 힘든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가을은 여름동안 따갑게 내리쬐던 태양이 따사로운 햇살이 되는 계절이다. 그리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괜히 가슴 시원해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다. 취업준비 등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보면 어느새 가을 하늘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가끔 이 갑갑한 일상을 뒤로하고 여유를 즐겨보자.  
지금 혹시 가을을 타거나 갑갑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버리자. 그리고 지그재그로 혹은 천천히 등교한다면 가쁜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이라고 믿는다.  
강건욱(불교대 인철4)

## 도서관 예절을 지키자

### 핸드폰 사용 유의해야

새로 개관한 만해관을 사용한다고 어느덧 2학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도서관에서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지적

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 사용문 제이다. 책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아 진동소리가 옆의 학생들에게 방해할 주는 일이 많다.  
전화는 웬만하면 꺼놓는 것이 예의겠지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핸드폰을 꺼놓아야 한다면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둬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꼭 해야할

때는 전화를 조용히 받아서 휴게실로 가서 통화를 했으면 한다.  
계단이나 책꽂이 사이에서 심지어는 열람실에 그대로 앉아서 전화를 받는데 작은 목소리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공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사람의 공간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유재명(생자대 식품2)

# 6자회담 타결과 정책추진방향



## 논단

이점호  
민화협 정책과장

6자회담 공동성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4차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안전 보장,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등 큰 틀의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 타결의 주요배경으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외교안보라인 교체, 중국의 역할, 한국의외교의 적극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회담합의 직후 경수로 지원 여부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렵사리 성사된 공동성명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자 합의사항의 약속이행을 위한 상

호간 신뢰구축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초가 마련됐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동성명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 순서 마련과 합의사항 이행진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수로 지원방안'과 대북 에너지 지원에 따른 '평화 비용'이 협상 분란의 도화선이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협상논란의 뇌관인 경수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신포 경수로 종료와 한국의 대체전력(200만 kw) 제공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신포 경수로 공사재개와 국제전소사업 운영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대북 전력 제공 소요비용이 약 9조에서 11조원(약 90억~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볼 때, 우리가 과거에 11억 5000만달러를 부담해 34%의 공정률을 보인 신포 경수로를 3조원(약 30억달러)의 비용을 더 들여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북 에

너지 지원비용이 복핵을 포기시키는 진정한 평화 비용으로 쓰여야 할 것이며, 그 지원시기에 있어서도 복핵포기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나, 비용 조기 지원으로 복핵 포기를 압박하는 방안을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주지해야 할 것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과오를 거울삼아 모든 사안들이 여야 및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간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의가 남남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핵합의는 다자간 보장문서로서, 핵폐기 이행 과정에 있어 북핵포기에 대한 책임을 각국이 공유하고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사항의 단계적 동시이행 원칙 아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다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의 이기심을 버리고 전략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 비로소 북미적대관계 해소,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활성화를 축으로 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독자 사진첩



여름바다 가을하늘  
여름바탕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때늦은 여름휴가를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다녀왔습니다. 푸른 여름바다 위로 구름이 펼쳐진 하늘이 높게 느껴지네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 김형중(행정2)

##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적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mailto:dgupress@dongguk.edu)

## 보리소

### 남 부끄럼과 제 부끄럼을 아는 사람

"사람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중간쯤이면 중간이라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효요경 권16》  
세상 사람들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일갈(一喝)하여 꾸짖는 말쑥인 듯하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모두가 남 비난하기에 바쁘다. 도청(盜聽)이나 떡값이니 하는 말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거래하느라고 저지른 일이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돈 거저 빌려주고 세금 깎아주었더니 엉뚱한데 갖다 쓰고 빼돌려 챙기고... 나쁜 짓하고도 오히려 당당히 고개를 들고 호통을 치고 헐박까지 한다.  
추악한 과거는 습기기에 바쁘고 제 이익 챙기느라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도 없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잠시 눈을 돌려 겸손하게 가을 들녘을 바라보자. 과실들이 제 몸을 살찌우고 씨앗이 영글어간다. 열매는 전생애 꽃들이 자태와 향기로 벌 나비를 초청하여 웅숭터 대접한 덕을 입었다. 벌 나비들은 꽃술을 발로 차고 날개에 묻혀 화분을 옮겨 꽃들을 도왔고, 그들도 꿀을 빨아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먹일 양식까지 넉넉히 준비해 두었으니, 이 또한 열매의 풍성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벌 나비는 부족한 것이 맘껏 이익을 챙겼고, 꽃은 벌 나비에게 크게 보시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얻었으니 참으로 상생(相生)의 삶이다. "꽃의 빛깔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그 꿀만을 따 가는 꿀벌처럼 성자(聖者)는 행각(行脚)하신다."《본생경 바수나품》  
자연은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촉구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남 보기에 어떨까를 헤아려 남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돌이켜 제 부끄러운 줄 아는 눈 밝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야 꽃과 벌 나비 부끄럽지 않으리라.  
이 학주  
시대부속어과 교법사

## 동국 히노아락



▲ 동국대학 1회 졸업생



▲ 초기의 교문



▲ 동대신문 창간호



▲ 당시의 교가

### ③ 동국대학으로 승격

해방 후, 해화전문학교가 복구되며 지금의 동국대학교 자리인 중구 필동으로 교사를 옮기고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동국의 발전을 위해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의 사찰에서 엄청난 양의 토지를 기부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마음이 모여서 드디어 1946년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된다. 그리고 1953년에는 중

합대학교인 동국대학교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6.25전쟁은 국민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대의의 위기였다.  
도시와 자료는 모두 타버리고 건물은 파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적부는 완전히 보존되었는데, 이는 교무과 서기 이철우 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26)	짬뽕국밥 (1800) 달양념꼬치 (2000) 베이컨볶음밥 (2000)	육개장 (2000) 카레라이스 (2000) 돈육양파김장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닭강정 (3500)
화 (9/27)	감자탕 (2000) 팔보채도밥 (2000) 두부김치 (2000)	비치락수제비 (1800) 오징어볶음 (2000) 비빔밥세트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전골 (3500) 삼치구이 (3500)
수 (9/28)	소고기국밥 (1800) 제육겉튀음 (2000) 회덮밥 (20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닭도리탕 (2000) 잡채밥 (2000)	된장찌개 (3200) 불낙전골 (3800) 매운갈비찜 (3800)
목 (9/29)	쫄면사리부대찌개 (2000) 닭갈비 (2000) 오징어볶음 (2000)	소만두국 (2000) 김치볶음밥 (1800) 짜개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돌솥비빔밥 (3500) 고동어무조림 (3500)
금 (9/30)	사골우거지탕 (1800) 쇠고기볶음밥 (1800) 탕수육 (2000)	닭곰탕 (20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간자장밥 (2000)	된장찌개 (3200) 상록정식 (3800) 해물덮밥 (3800)

# 신은 과거를 만들었지만 나는 미래를 만든다!!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제3차 수습기자 모집**

**대상** : 열정을 갖춘 05학번  
**원서접수 및 교부** : 9월 30일 (금)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옆 V동 본사편집국  
**필기시험 및 면접** : 9월 30일 (금) 오후 6시 중앙도서관 옆 V동 본사편집국  
**특전** : 기자활동, 장학금 및 해외연수  
**문의** : Tel. 02-2260-3493  
[dgpost.cyworld.com](http://dgpost.cyworld.com) / [dgpost@dongguk.edu](mailto:dgpost@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이 상 영  
법과대 법학과 교수

내 유학시절의 일이다. 함께 공부하던 독일 친구의 생일초대를 받아 참석하였는데, 전에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만 초대했던 이날 생일 파티엔 20여명이 넘는 많은 친구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이 자리에 외국학생이라곤 나 혼자 뿐이었다. 한참을 서로 재미있게 얘기하며 흥

이 무르익을 무렵 대머리여서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독일학생이 나에게 친밀감을 보이는 것 같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국에선 연일 민주화 시위로 어수선한 때였고, 독일 TV뉴스에서도 한국의 이런 시위장면이 줄곧 보도되곤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데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와 함축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가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 비아냥과 한국인에 대한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얘기인즉, 한국대학생들은 데모만 하고 언제 공부하느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열등하지 않느냐, 독일이 유학 온 한국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한국학생들이 절도행위를 많이 하더라, 대중 이런 것들이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급기야 나의 자존심을 심하게 자극하였고, 나는 곧바로 그의 얘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독일과 독일인에 대해

# 자존심과 자만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나의 반론의 핵심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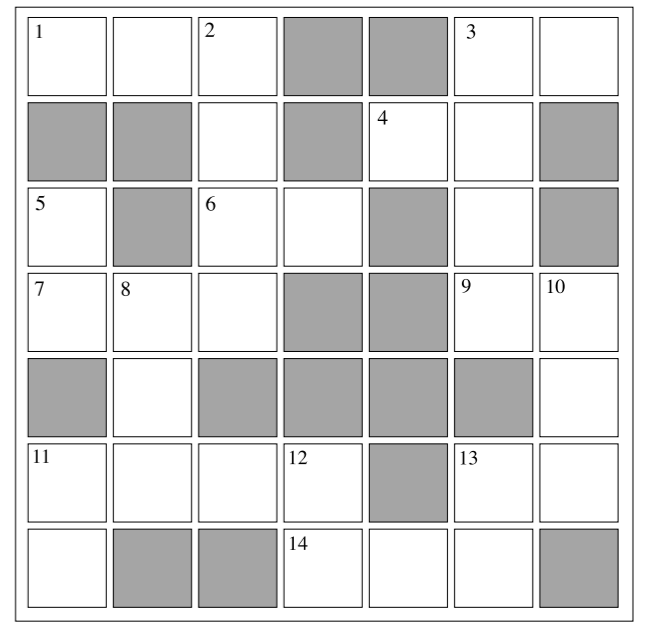
내가 직접 겪은 자전적 도난, 세미나눔도 난과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통해서 독일의 법이 왜 발달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내가 유학 초기에 가졌던 독일과 독일인에 대한 동경이 사라졌고, 이제 독일에서 배울 것은 법밖에 없는 것 같다. 과거 독일인의 근면성은 지금 독일의 젊은이를 보면 잘못된 과대포장이다. 나찌에 저항하지 못하고 600만명의 유대인을 죽인 독일민족이 어떻게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와 비민주 군사독재에 저항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진정으로 우수한 민족이다. 아직도 독일제국의 환상에 젖어 자만심에 빠진 너희들보다는 가진 것이 적어도 불의에 항거하고 타국에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우리가 진정한 자존심이 있는 나라다.

그날 생일에 초대받은 20명 모두가 30여명 동안 나의 이러한 반박을 경청하게 되었고, 그

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반론을 펴지 못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대머리 학생은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렵 나에게 몇가지 불쾌한 사건으로 독일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기면서 유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차에 그의 불손한 태도는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아마도 지도교수님께서 나를 불러 대신 사과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학업을 중단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만큼 내가 지닌 자존심은 학업 못지않게 나를 지탱한 힘이기도 했다. 나는 늘 진정한 자존심이란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겸손함을 잃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불손한 자만심을 키워서는 안될 것이며, 더불어 그러한 자만심에 맞서 정당하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젊은 지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10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사명감 가지고 동대신문 만들길 전체적으로 제목 크기 작아

동대신문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는 ‘학생회비 납부’ 기사다. 최근 몇 학기 동안 학생들 입에 여러번 오르내리던 이야기를 1면 톱으로 처리한 것은 좋은 판단이다. 하지만 제목크기가 톱기사에 어울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밖에도 전체적으로 동대신문 제목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칭찬합시다’ 칼럼은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1면을 긍정적인 취지와 기사형식으로 따뜻한 느낌을 준다. 또한 1면 사진 ‘삼성X파일 진상규명’은 사회면이 없는 동대신문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기획취재면을 보면 대학과 기업이라는 아이템 선정은 신선했다. 하지만 외국대학 사례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보도 형태로 알맹이 없는 기사로 심층적인 부분이 부족했다. 사설은 신문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이에 지난호의 이슈인 학생회

비 납부로 주제를 잡고, 앞으로 우려되는 점을 동대신문 나름의 시각으로 풀어냈던 것은 적절했다. 학술면에서도 ‘철도’라는 테마는 신선했다. 또한 다른 면과는 다르게 큰 이미지 등으로 시원한 편집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철도역사와 관련한 기사는 지루했다. 중국시문학의 발자취는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칼럼이다. 다음호에 실릴 기사가 궁금해진다. 여론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편집을 했다. 칼럼수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면에 예비동국인 좌담회는 신선했다. 하지만 아이템만큼 신선한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다. 새들면은 면의 성격과 담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동대신문은 동국언론의 주역이다. 기자들은 이러한 사명감 속에 더욱더 발에 땀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박명인(문과대 영문3)

## 미당 문학상 수상한 문태준 동문

### 누가 울고 간다



▷1970년 경북 김천 출생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 ‘수련거리는 뒤린 땀발’  
▷동서문학상, 노작문학상 수상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춤하다

넝쿨에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볼러 본 사이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빛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빛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릴 꺼내 퍼나

저렇게  
울고  
떠난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 낼 수 없는

중앙일보사와 계간 ‘문예중앙’이 공동 주최하는 제5회 미당문학상 수상작으로 문태준 동문의 시 ‘누가 울고 간다’가 선정됐다. 문씨의 ‘누가 울고 간다’는 “우리 서정시를 위무의 성소(聖所)로 이끄는 언어의 축복이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미당문학상은 20세기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고, 민족정신과 정서를 가장 세련된 우리말로 표현한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추진과정에서 서정주가 한국인의 마음 깊이와 아름다움, 한국어 자질 등을 가장 세련되게 가꾼 최고의 시인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친일·친독재에 관한 부분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가로열쇠

- 1. 2005월벨코리아배 전국수제대학연맹전에서 승실대에 아쉽게 저 준우승한 우리학교 ○○○.
- 3. 이번 호 매체비평에서 다룬 광고는 “‘이것’을 향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기본으로 제작됐다.
- 4. 우리학교에는 사찰을 방문하는 ○○순례라는 행사가 있다.
- 6. 병으로 인한 결석.
- 7. 교육부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고등교육○○○(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 9. 학생들이 주로 밥을 먹는 곳. 우리학교의 경우 삼육원, 동국관 등 학생○○
- 11. 지난 1학기 대학구조조정 결과 폐지된 ○○학과.
- 13. 유럽에 위치하고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나라.
- 14. 최근 우리나라에는 중국어, 일본어 등 제 2○○○를 배우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세로열쇠

- 2. 우리학교가 매입한 중앙대학 ○○○○은 앞으로 총무부 영상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 5. 사물에 대해, 혹은 울고 그림에 대해 평가함을 일컫는다. 우리학교 문화기획 매체○○ 칼럼에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8. 우리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획한 목막 ○○○.
- 10. 국제간 교섭 중 그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 11.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 13.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인 아르바이트. 최근 수능이 다가오면서 족집게○○, 고액○○ 등이 유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14. 21세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관심사는 취업과 ○○○일 것이다. (우리신문 1면 기사 참조)

##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일본문학연구소 일본학총서4  
**1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정성본 지음  
2005/국판/444원/12,000원  
ISBN 89-7801-146-2 04220

선(禪)이란 무엇인가? 참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선 수행을 해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수행에 뜻을 둔 모든 불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경전과 어록을 통해 불법의 대의와 수많은 반야의 지혜를 체계화한 공부법을 말해주고 있다. 경전과 어록을 읽지 않고서는 불법의 정신과 지혜를 체득할 수 없으며, 지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불교인의 인격 형성과 안목 있는 보살도의

위대한 삶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선불교(禪佛敎)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중국인들의 현실궁정 사상으로 수용하면서 형성된 당(唐)대의 조사선(禪師禪)으로서, 조사선은 인도불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국인이 요구한 현실생활의 종교로 개혁한 것이다. 그래서 좌선과 상단 설법, 그리고 선문답이라는 대화가 새로운 선수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었는데, 그 교육적 성원을 중심으로 체계 있게 실시되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도입부(導入部)에서는 선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고, 다음에 조사선의 수행 체계를 설명하였으며, 끝으로는 간화선의 수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간화선(禪敎)에서 주장하는 무(無)지화두 참구방법, ‘이렇고?’와 ‘한 소식’, 다른 모든 공안을 참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간화선(禪敎)의 시각에서 진단해 보고 잘못된 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좌선수행법인 좌선의(坐禪義) 원문을 실고 번역과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여주고 있어 선수행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책이다.



**2 웨단파의 철학**  
상카리를 중심으로  
미에다 센기쿠 지음/ 강종원 옮김  
2005/국판/340원/12,000원  
ISBN 89-7801-151-0 94150

상카, 요가, 나야, 와이세시카, 미량사, 웨단파 등 인도의 여섯 정통 철학과 중, 현대에 이르러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힌두교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는 철학은 바로 웨단파 철학이다. 하지만 웨단파 철학 혹은 웨단파 학파가 인도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그간 우리 출판계에서 이와 관련된 문헌들의 출판은 극히 저조한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원로 불교학자이자 인도철학자인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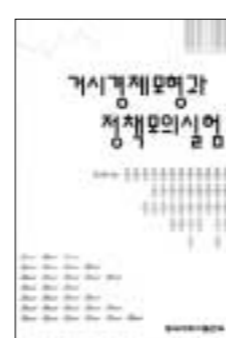
에다 센기쿠가 저술한 ‘웨단파의 철학: 상카리를 중심으로(ヴェーダの哲學: シャンカラを中心として)’를 번역한 본서는, 웨단파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지식을 원하던 독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웨단파 철학을 집대성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분파를 파생시킨 인도철학 최고의 철학자 상카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그의 저술 가운데, 다른 교단에 대한 주석서가 아닌 상카리 자신의 독자적 저술 ‘우빠데사 사하스리’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불교학 및 인도철학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였던 나가 무라 하지메(中村 元)의 수제자로, 이들 학맥은 웨단파 관련 문헌학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들을 이루어왔다. 저자 미에다는 스승이었던 나가 무라 하지메의 웨단파 관련 4부작의 학풍을 이어받아, 상카리의 독자적인 저술 ‘우빠데사 사하스리’의 문헌학적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인물이다. 웨단파의 전체적 역사의 개괄도 포함한 이 책은, 웨단파 철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론과 연방건설**  
3 (부:남북한 통일방안의 제도적 의미)  
천상덕 지음  
2005/신국판/438원/20,000원  
ISBN 89-7801-148-9 93340

유럽연합(EU)의 전개, 정치통합의 과정과 제도발전의 연방주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에 추가하여 남북한통일방안의 제도적 의미를 평가한 책. 세계화와 국제적인 지역통합은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 개념을 변화시키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하여 21세기 국제정치구조의 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국제적인 지역통합은 세계정치 및 경제를 조직하는 중심원리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역통합 기구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그 기원을 둔다. 이를 토대로 창설된 1958년의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경제부문의 자유화와 공동시장의 설립을 달성하였다. 이 제도들은 1965년에 단

일한 집행부로부터 병합된 유럽공동체(EC)로 탈바꿈하였다. EC는 1985년의 단일유럽의정서(SEA)에 근거하여 연내 시장통합을 완결하였다. 1993년의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 조약들과 결합해서 공동의교안보정책과 내무·사법 분야의 정부 간 협력을 도입하였고, 유럽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2004년 6월의 유럽헌법제정 조약(안)에서 유럽연합의 건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연합이 지속적인 심화과정에 힘입어 어느 정도 내적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자율적인 정치체로 파악하고서 비교연방주의를 인용하고 있다. 비교연방주의는 종래의 국제관계 이론과는 달리 살해하는 연방주의들이 지니는 불변하는 특성, 즉 중앙권위기구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집중화 혹은 구성단위들의 회의로 전체 권력의 집중화를 지향하는 경향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책은 첫째, 국제관계 이론의 전개와 연방주의 접근법의 제시, 둘째, 회원국의 주권이 유럽연합에 점차 집중화되는 유럽연합의 정치통합 과정 고찰, 셋째, 유럽연합의 권력이 정부대표 제도와 초국가적 제도들 사이에서 재편되는 제도적 발전의 해석과 이를 토대로 한 ‘미레EU’의 모델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비단 유럽연합의 실제와 제도정립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북한정치통합의 제도적 형성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4 거시경제모형과 정책모의실험**  
장오현 지음  
2005/신국판/190원/20,000원  
ISBN 89-7801-144-6 93320

오늘날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시경제학 교재의 대부분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현상을 전제로 한 이론의 소개가 중심인 반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는 노력이 소홀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학 교육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중급 또는 고급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교재로서 마련한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이론의 흐름을 비교적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구조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거시경제모형은 대외여건의 변화와 개방화 그리고 재정, 통화신용

및 환율정책 등 주요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함은 물론, 학술적 기성 검증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동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 규모와 구조를 설정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 고용, 물가 및 국제수지 등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관심사는 총수요관리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거시경제모형은 단기적으로 경제의 총공급이 잠재생산량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재정 및 통화신용정책 등의 파급효과가 수요 및 물가를 통하여 총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케인즈의 소득결정이론에 신고전이론을 가미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실물부문의 총수요는 수량조정과 상대가격으로 설명되며 공급은 임금 및 물가를 통하여 조정된다. 물가는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로 측정된 가동률 또는 실업률 등 수요 측 요인과 임금, 자본비용 및 수입물가비용 측 요인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 책은 중급 또는 고급 거시경제학을 이해하고 중급 수준의 계량경제학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후학들이 한국경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거시경제학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계대학연맹전 우수 선수상 수상, 하재훈 선수 인터뷰

“장점이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체육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하재훈 선수가 바로 그이다. 이번 협맹 코리아배 추계대학연맹전에서 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그를 만나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소감. = 4학년 선배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상식에서 이름을 불러 당황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예선전부터 체력적으로나 플레이 면에서 기록이 없었던 점이 우수 선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 축구부 선수 모두 여름휴가도 없이 방학 내내 훈련을 받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준우승까지 하게 되어 더욱 뿌듯하다. 하지만 이번 결승진출은 유난히도 우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준우승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축구 선수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은. = 무엇보다 항상 성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팀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정으로 단합이 잘 되는 편이다. 선수를 모두 누구하나 빠짐없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 역시 모든 일에 착실하게 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운동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집이 울산이라 기숙 생활을 하면서 1년에 거의 3번 정도 밖에 내려가지 못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갔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부모님을 보니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했다.

또한 훈련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날이 많은데 이를 잘 이해해주시는 교수님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학점을 따는 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 앞으로의 계획. = 이번 대회의 준우승뿐만 아니라 지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준우승이 '우승'의 문을 두드리는 발판이 될 수 있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해 우승으로 학교를 빛내고 싶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학교 학생 중에는 학교에 체육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 체육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원적

우리학교 일산병원에 법구 기증돼

지난 11일 원적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구(승려의 시신)가 우리학교 일산불교병원에 기증됐다. 스님의 법구가 다비식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 기증되는 것은 한국불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장스님은 지난 1994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각막 등의 장기를 포함 시신전체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장 대종사 장의위원회와 문도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법구

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구 기증으로 지난 15일 충남 수덕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비식은 취소됐으며, 오전 10시 영결식이 조계사에서 스님과 일반신도, 각계 인사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5년간 우리학교 재단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는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재직 시 종단 운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종단 화합'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우리학교 만학도 조일환씨 장학금 400만원 기부



올해 초 60대 후반의 만학도로 우리학교 경주캠퍼스 인문학부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조일환 씨가 지난달 22일, 자신이 받은 지난 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1백만원에 사비 3백만원을 보태 동료 재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총 4백만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와 관련해 조일환 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손자 같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장학금이 의미 있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양화가 홍창룡 동문 개인 미술전 열어



우리학교 홍창룡(미술학과 83졸) 동문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울산 갤러리 보우에서 개인 미술전을 연다.

이번에 14번째 개인전을 갖는 홍 동문은 지난 1984년 '제7회 중앙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여러 차례 초대전에 참가해왔다.

학군단, '우수학군단' 선정 후보생 2명 우수상 수상



우리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 지난달 31일에 끝난 하계입영훈련에서 103개 대학의 학군단 중 우수 학군단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더해 개인 시상식에서는 1500여명의 후보생 중 총 10명의 학생에게만 수여되는 개인 우수상에 우리학교 전자공학과와 이공국 후보생과 영화영상학과 김슬기 후보생 2명이 선정돼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우리신문 기획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배를 만나다

지역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문화활동의 파수꾼



민예총 사무국장 김기봉(사학 82졸) 동문

서글서글한 미소와 호탕한 목소리로 만나자마자 악수를 청하는 김기봉 동문. 밝은 모습으로 악수를 청하는 그의 두 손에는 자신의 몸을 의지하기 위한 목발이 들려 있다. "3살 때 찾아온 소아마비로 이 목발에 의지해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이네요." 대학 시절에는 통학을 위해, 요즘은 문화활동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원주와 서울을 왕래한다며 미소 짓는 그에게 불편한 다리쯤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듯해 보인다.

"한창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80년에 이념 서클의 대표로, 주요 학생운동 지도자 리스트에 올라 수배생활까지 했었죠. 이것이 고향인 원주에 내려와 본격적인 문화운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학생 운동가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피해 본가로 내려온 그는 자신의 고향인 원주가 70년대 재야운동, 민주화의 성지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실패로 끝난 민주화 운동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대학 3학년 시절부터는 민속문화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대중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에는 어떤 것보다 문화

활동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지난 91년에는 소극장인 '밝은 마당'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연극의 기획에 더불어 시민사회 정보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통했는지 사회적으로 지역 분권적 문화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분권정치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역시 특화된 지역 문화 개발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문화관광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주축이 돼 전국적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김 동문 역시 민예총 사무국장으로서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하며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우리학교 선·후배 동문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씩씩한 미소를 짓는

김기봉 동문. 우리학교는 전통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가 발전해 있는 만큼 많은 후배들이 정책적인 문화 활동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의 지금의 노력들이 빛을 발해 지역문화 발전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리서치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파아란 하늘이 저만치 높이이고 날쌔 말마져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선선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이는 지금 우리 동국인들은 가을을 맞아 얼마만큼 마음의 양식을 쌓아 가고 있을까.

지난 22일 우리신문사에서는 동국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독서의 계절 가을,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란 주제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한 권도 안 읽는다는 학생이 57명(19%), 1, 2권의 책을 읽는다는 학생이 147명(49%), 3, 4권이 39명(13%), 5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7명(19%)으로 한 달에 1, 2권의 책을 읽는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체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명깊게 읽은 책 소개 -

△ 천상병의 '귀천'은 어느 시들보다 쉽게 읽혔지만 그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 - 임진규(신방3)

△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으며 죄는 미워해도 생명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사형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 김윤미(북한4)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일류동국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후원금 종류

100만달기 기금, 발전기금, 불교병원기금, 장학기금, 특색목적기금, 단원기금, 동국사랑저금동기금, 수증음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기부자님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참여방법

일시완납, 월납,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개인, 법인 및 단체 명의로 후원 가능 계좌이체(CMS)를 통한 편리한 방법 가능 현금이나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의 수증물품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실 T 02-2260-3794~5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실 T 054-770-2100

ARS 기금접수 060-7000-119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1906

국제문화예술포럼 개최

# 수용자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해야

## 자유로운 예술분위기 만드는 파리지 정책 모범적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리아의 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유럽 곳곳의 도시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도시개발보다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체계적인 복원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략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는 세계 주요 문화도시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듣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문화도시정책을 수립해보는 자리인 '국제문화예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먼저 서울·파리·바르셀로나·광주의 문화도시 정책 발표로 시작했다. 각각의 주제와 발표자는 △문화도시 서울 추진전략과 방안=권영길(서울시 문화국장) △백야:공적공간에서의 소멸적 이벤트=아미바라(파리지청 예술국장) △바르셀로나:21세기를 위한 문

화모델=필핀 폴로메(주한 스페인 대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비전, 컨셉 그리고 전략=이영진(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열린 토론에는 발제자들과 더불어 연극연출가 김정옥 씨, 연세대 민선주(건축공학) 교수, 단국대 조명래(도시·지역계획학) 교수, 허정아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전문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 문화정책은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단순한 시설의 증축이 아닌, 내용과 사람을 중요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권영길 문화국장은 "서울만의 특성을 갖고, 인간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휴머니즘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오는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교류센터 △문화연구원 △영상관 △공연장 등을 구축해 도시 전체가 문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 창조를 주요 원동력으로 삼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정옥 씨는 "광주라는 행정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아우르자"는 제안을 했다.

포럼에서 소개된 유럽 두 도시의 문화정책은 우리 도

시정책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미바라 국장은 "단 하루동안 파리 곳곳의 야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백야'는 도시공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파리의 모든 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예술가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모든 예술가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한다"는 정책은 우리도 지향해야 할 특징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필핀 폴로메 대사는 "정부가 '문화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광주 계획은 아시아 내 문화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 중심보다 수용자 중심의 문화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에 진정성이 와 당도록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선주 교수도 "역사와 민족의 당대 특성을 보여주는 시설들은 보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시간동안 계속된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무진들이 참가해 더욱 긍정적이었다.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탈수습기

## 사람냄새 나는 기사로 독자에게 기쁨 줄 것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광복 60주년을 맞이해 열린 8·15 통일대축전을 취재하려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갔다.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지켜보는 북측 대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용기를 내 그들에게로 향했다. "남북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소감이 어떠세요?"

막연한 두려움을 뒤로 하고 던진 질문에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 참으로 기쁘네. 우리가 통일 1세대가 될 것이라 믿습네다"라며 밝게 웃는 북측 여학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단지 내 의식 속에서 '다른' 존재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지난 4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은 틀 안에 갇힌 내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배움의 시간들이었다.

대학 입학 후 부여된 자유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쯤 신문사 모집광고가 눈에 띄었고 그 길로 수습기자가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습기자 활동은 만만치 않았다. 쌓인 취재와 청탁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조판 작업은 몸을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생각의 틀을 깨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동안의 고됨이 희열로 바뀌곤 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기 넘치는 삶을 마주하는 것은 나를 더욱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됐다.

문화부 수습기자로 활동할 때 환경영역에 개막식을 취재 갔다가 배우 안성기 씨를 인터뷰할 수 있었다. 평소 존경하던 그로부터 직접 영화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 때의 경험은 나에게 더욱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농민들의 고된 생활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농활, 전국 학보사 기자들과 다녀온 중국 탐방은 내 생각과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제 지난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성장한 '정기자'로 거듭나려 한다. 사회의 진실을 꼬집는 시각과 다양한 곳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사로 내가 느낀 희열을 독자들에게 나눌 것이다. 내 이름이 달린 기사를 읽고 기쁨을 느낄 독자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정명아 기자 brightah@dongguk.edu

### 메아리

## 위협적인 광고

▲ '시대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 급변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기호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보다, 흐름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 또 다른 흐름을 예상해내는 사람이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 SBS 드라마 '투루공주'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김정은이 자신의 팬 카페에 "더 이상 드라마를 못 찍겠다"는 심경을 고백했다. 이유는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한 억지스러운 줄거리 전개, 대본이 늦게 나와 대사를 외울 시간조차 촉박한 압박한 촬영스케줄 등이었다. 그러던 그가 다시 드라마로 복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해 보였다. 하지만 20개도 넘는 간접광고로 도배된 '투루공주'는 한국 드라마의 최악이라는 평가 앞에서 묵묵한 뿐이다.

▲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계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문제

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외주프로덕션이 제작하는 드라마에만 간접광고가 허용되고 있지만, 요즘처럼 대부분의 드라마를 외주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때에 '한 드라마에서 3개는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간접광고가 일반화된 추세다. 주어진 제작비로는 인기 출연자의 출연료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제작사와 협찬사 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지나친 간접광고는 드라마 흐름 자체를 방해해 질 저하를 낳는다. 결국 시청자들은 70분짜리 '광고'를 보는 셈이다.

▲ 방송위원회에서 연내에 방송광고제도 정책개선안 방향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쟁점은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에 대한 허용여부이다. 이에 대해 시청률을 자극해 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며, 지상파방송사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방송위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전향적 검토"라는 모호한 대답만을 남기고 있다. 방송위가 우리나라 광고계와 시청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는 시야를 갖추고 있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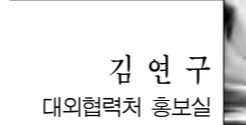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 내가 좋아하는

## 문화예술인



사진가 헬무트 뉴튼



김연구 대외협력처 홍보실

관음과 욕망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사진가 헬무트 뉴튼. 내가 이 이름을 처음 접한건 사진학과에 다니던 90년대 후반쯤이었다. 새로운 사진가들을 알고 그들의 작업에 충격을 받으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기억이 난다. 거장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에 동경심

## 패션누드를 개척한 세계적 사진가

을 가지면서, 초라한 내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곤 했다.

로버트 프랭크, 두안 마이클, 로버트 메이플도프, 리 프리들랜더, 조남봉... 내게 영향을 준 사진가 혹은 좋아하는 사진가들을 꼽으라면 백명은 쉽게 넘는다. 하지만 그 중 유난히 나의 관심을 끈 사람이 바로 '헬무트 뉴튼'이다. 뉴튼이 날 사로잡은 것은 아마도 그의 사진이 주는 충격뿐만 아니라 그가 사진으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뉴튼은 60년대 '보그', '퀵', '엘', '플레이보이' 등 세계적인 패션잡지와 일하면서 패션 누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사진가로 인정받게 된다.

그는 주로 여성의 누드를 소재로 이용했는데 그의 누드사진은 지금까지도 '외설'이나, '예술'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외설스러움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어떤 사물을 보면서 외설스럽다고 느낀다는 그 사람이 외설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의 작업 중 '웃 벋은 모델과 웃 입은 모

델들', '빅누드' 시리즈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웃 벋은 모델들과 웃 입은 모델들'은 두 장으로 구성된 시리즈 사진으로, 웃을 입고 촬영한 사진과 웃을 벗고 촬영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전시한 작품이다. 두 사진 속의 모델들은 같은 포즈와 표정을 하고 있다. 모델들이 '웃을 입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느끼는 충격을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엉뚱하고 엽기적인 발상의 작업이 저질스러운 아이디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빅누드'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다. 실물보다 크게 인화한 사진 속의 여인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다. 아하지 않은 누드사진. 결코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다.

사진가는 사진으로 이야기할 뿐, 결코 자신의 사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거나 이론의 노예가 돼서는 안된다. 만약 누군가 그런다면 그는 평론가이지 사진가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도 뉴튼은 진정한 사진가였다. 이제 나도 나의 사진을 찍고 싶다.

### 동국 락뮤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동국 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학내 구성원들과 락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학기부터 매주 화요일에 "외국 유명밴드의 라이브 공연실황"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 중앙도서관 AV실**

- 제4회: 9월 27일(화) 오후 6:00  
프로그램: Eric Clapton / 하이드파크 공연실황 동영상
- 기존 상영 내용
  - 제1회: 밴드 DIO의 "Spectrum Live"(전미투어 실황 동영상)
  - 제2회: Pink Floyd의 라이브 동영상 "Pulse"
  - 제3회: Metallica / 모스크바 락페스티벌 공연실황 동영상

주최: 동국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락동아리 피어리스 락

### The 4th SSID Festival Salsa & Swing in Dongguk

**SUPER STAR**

- Sexy salsa /
- Ultraswoopy merengue/
- Powerful girls hiphop/
- Enjoy Jitterbug 1/
- Romantic lindy/
- Stylish lady styling/
- Trademark Jitterbug 2/
- Action line dance/
- Remember me singsingsing (Encore)

주최: 동국대학교 락댄스 동아리 SSID  
장소: 동국대학교 본관 중앙당 구입 및 문의: 010\_4713\_8011, 011\_9255\_0921  
일시: 2005.9.30(금) 늦은 7시

### 동국 락뮤직 만화동마케 만화영

애니메이션 상영회

상영 일자	28(수)	29(목)	30(금)
9월 28~30일	3:00 오세암	3:00 곰돌이 푸의 테니스의 왕자	3:00 해탈담 무비극장판
	4:00	4:00	4:00
	5:00 마피마마기	5:00 마이론킹	5:00 고양이와 보문
	6:00	6:00	6:00
	6:30	6:30	6:30
	7:30	7:30	7:30
	8:00	8:00	8:00
	8:30	8:30	8:30
	9:00	9:00	9:00

상영 장소: 중앙도서관 A/U실

"무료상영"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감상해보세요!

# 난 '웰빙캠퍼스' 다닌다~

## 매체비평

### 광고편

#### SK 텔레콤 연작광고 세편

#### 암묵적 언어폭력 걷어낸 진짜 휴머니즘으로의 회귀

언어는 칼이다. 흉기다. 보이지 않는 시퍼런 날로 사람들의 가슴에 쉽게 상처를 낸다. 언어폭력은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다. 폭력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게끔 온갖 가면을 쓰고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텍스트의 상품 이데올로기에도 음흉한 폭력이 숨어 있다. 때로는 빈부와 학력에 의한 계급차별의 모습으로, 혹은 성폭력이나 언어폭력의 형태로 광고 메시지는 은연중에 폭력을 행사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징폭력은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어 정치폭력이나 물리적 폭력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SK텔레콤은 자타가 고루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보통신 서비스의 하나다. 이 기업이 지금까지 발신한 몇몇 광고 메시지는 언어폭력의 혐의가 다분했다. '번호의 자부심이 다릅니다' 라는 카피도 그 사례 중의 하나였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줍니다' '백만 명 중의 단 한 분을 위하여' '대통령의 넥타이, 0000' '누구시갈래' 등의 문구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상징폭력에 의한 계급의 '타내기 전략'이 엿보였다. 자동차, 무선통신 서비스의 번호, 아파트의 소유형태에 의해 신분과 지위가 결정된다는 암묵적 언어폭력으로 계급의식의 조장을 부추기고 있었다.

SK텔레콤이 그런 짙짙한 오해를 한방에 날려 보낼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던졌다. 추석 연휴 어름해서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민 연작 광고 세 편이 그것이다. 가진 자들의 특권을 소리 높여 외치던 상기된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어 나지막한 울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세삼스레 칭찬받아 마땅한 기법은 아니지만 흑백 톤의 질박한 화면이 광고의 깊이와 운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세월의 뒷개를 엮은 초라한 시골의 정경과 남북한 할머니의 무감한 시선... 그 너머로 흘러나오는 비틀즈의 '렛잇비(Let it be)'는 전혀 예상 밖의 충격적이다.

절제와 조화를 제대로 갖춘 영상과 음향은 이 광고가 주장하는 바 '인간을 향한 기술'에 고스란히 바쳐지고 있다. 인간은 보이지 않고 기술만 난무하는 광고 테크닉,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표현기법만 요란한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맹목적으로 경쟁하는 정보통신 범주의 광고가 발견한 블루 오션(blue ocean)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싸움의 장을 바꿀 여유와 통찰이 있는 자에게 전혀 다른 화두와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 솜씨가 자연스레 따라온다. 애써 기계를 밀쳐 버리고 영상연출의 군더더기를 걷어낸 앵글에 비쳐진 투박한 손마디, 주름진 얼굴, 무심한 몸짓들. 그 행간 사이사이로 사람이 보인다. 현란한 테크놀로지의 오토라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휴머니즘의 아우라가 드러난다. 이 광고를 두고 '햇볕의 그늘'이니 '핵심 없는 핵 이야기' 등과 모종의 관련성을 운위할 수 있을까. 그런 음모야말로 언어폭력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 현 우

동대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광고 칼럼니스트

## 우리 학교 주변 저렴한 체육시설 이용 가능 생협, 친환경 식단 재료 도입 현실적 어려움 겪어

최근 2년여 새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 급속히 퍼진 '웰빙'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해도 손색이 없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보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되는 웰빙 문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대학교 그 주변이라 할 수 있다.

우리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변화가 빠른 부분은 학생들의 주된 식사가 이뤄지는 학생식당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맞춰져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조리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는 최대한 국산품을 사용한다. 식단의 메뉴 또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꾸준히 체크해 반응에 따라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이다.

그러나 학생식당이기에 때문에 좋은 재료와 메뉴를 개발하는 데에는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적인 유기농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가격이 비싸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이

재육 팀장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격수준으로는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풍부한 재료와 샐러드, 음료 등이 제공되는 '양식코너'에 대한 최근 학생들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일반학생식당 이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격의 큰 차이보다 음식의 질과 맛이 더욱 중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식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교직원 식당에는 건강식인 '잡곡밥'이 매일 약 150인분 정도 자율배식되고 있다. 낮 12시부터 배식되는 잡곡밥은 15분이면 모두 없어질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메뉴인 된장찌개는 야채샐러드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한 식단이다. 문화관 식당도 교직원 식당 메뉴 중 한 메뉴가 매주 2회 야채식단으로 구성돼 꾸준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식생활과 더불어 웰빙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최근 우리학교는 중구형과 정보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해 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더욱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충무아트홀과 장충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우리학교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충무아트홀 체육센터의 경우 다양한 운동강좌가 개설돼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이대충 충무아트홀 운영부 주임은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에게 수영, 태보, 밸리댄스, 나이트댄스 등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충무아트홀은 3만~4만원 대의 저렴한 가격에 최신 장비를 갖춘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셔틀버스도 운영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 초 개장한 장충문화체육센터는 우리학교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 데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갖춘 헬스클럽과 도서관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강수 팀장은 "동국대 구성원들의 이용률은 현재 10% 정도인데, 점차 알려지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여학생실에서 매 학기 개설하고 있는 요가, 미용관련 강좌는 조기마감 되는 등의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학교에도 점차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관련 강좌 개설,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보다 넓은 시야에서의 '캠퍼스 웰빙'을 실천해 나아가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 태대학 현황

## 학생들 호응 높은 건강 아이템

지속되는 웰빙 열풍은 캠퍼스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대학가의 새로운 문화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강좌까지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체지방 감량 정도에 따라 학점을 주는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비만관리' 수업을 개설했다. 이 강의는 체지방을 비롯한 기초 대사량 등을 정밀 측정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운동법을 처방한 후, 목표 체중 달성을 위한 체력 실습을 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강의하는 연세대 백일영(체육교육학) 교수는 "신입생들의 건강관리

를 돕기 위해 마련된 수업"이라며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과학적인 체중관리는 실제 학생들의 체중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올해 △현대인의 생활과 식품 △허브와 건강 △영양과 생활 등 식생활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했다. 특히 허브의 특성과 향기 요법 등을 배우는 '허브와 건강'은 200여명의 학생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대도 교양과목으로 '잡살이 의학특강'을 새로 개설했다. △비만과 체형 관리 △술과 건강 △근시와 라식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강과 관련한 폭넓은 소재에 대해 의대 교수 20여명이 번갈아 강의한다.

이 밖에도 최근 웰빙과 더불어 학생들의 주변 관심사인 다이어트 관련강좌가 한국외대와 건국대에 개설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내 식당가도 마찬가지다. 원주 상지대는 친환경 유기농 쌀과 채소로 식단을 제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화여대 학내 매점에는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알로에즙, 석류즙, 당근즙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지난해부터 조미료를 일체 넣지 않고 식단을 조리하기 시작했다. 숙명여대 이지현(국문2) 양은 "이제 외부 식당보다 학내 식당을 애용한다"며 "음식도 맛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

다"고 말한다.

대학가 주변도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자연주의를 내세우는 한 화장품 브랜드는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려는 남녀 대학생들의 심리를 겨냥한 경우다. 또한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각종 녹차 음료와 식품은 맛과 질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한다.

이렇듯 대학가에 새로운 강좌·식단·상권이 웰빙 흐름을 타고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칫 웰빙과 관련된 소비적 생활양식에만 무게를 둔다면 웰빙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시대흐름에 따라가기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와 더불어 내면의 건강함을 가꾸는 성숙함이 필요한 때이다.

정명아 기자  
brightah@dongguk.edu